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문구의 『관촌수필』 교수-학습방안 연구

- 신문을 활용한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윤 옥

# 이문구의 『관촌수필』 교수-학습방안 연구

- 신문을 활용한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윤 옥

# 인 준 서

김윤옥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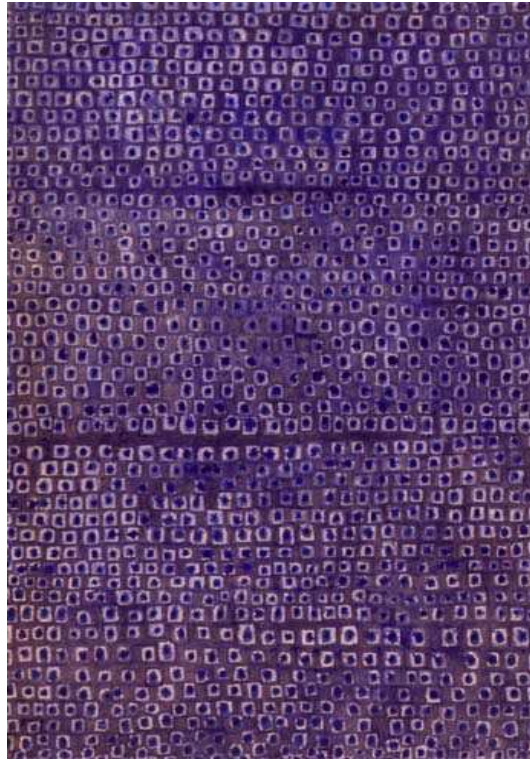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970년.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님의 시 「저녁에」 전문,  
1969년 『월간 중앙』

## 논문 개요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1972년부터 1977년 사이에 집필된 연작소설로서, 6·25전쟁과 산업화로 인하여 파괴된 고향의 모습을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과 탁월한 어휘로 그려 낸 작품이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1970년대 소설을 대표하는 수작(秀作)이며, 현대적 관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촌수필』이 내포하고 있는 현대적 의의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구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자는 그 구체적 지도 방안으로 학습자의 주체성을 신장시키며,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창의적인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신문 매체를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문이 갖는 기본적 성격과 함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신문 활용의 가능성을 밝힌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III-1장에서 교사가 탐구학습이나 협동학습의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관촌수필』의 논의점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방안의 전제로 삼았다. 그리고 III-2장에서는 II장에서 가능성을 밝힌 교수-학습 방안과 III-1장에서 논의한 텍스트 내적 문제들을 바탕으로 「일락서산」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락서산」의 교수-학습 방안은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로 크게 계획하였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인 협동학습을 전제로 하였다. 진단 단계를 거친 지도 단계는 “개괄적 접근→분석적 접근→종합적 접근”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텍스트의 접근 단계에서는 작품 및 작가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고 수업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평가 단계는 지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재창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신문 만들기> 활동을 모듈별로 평가하고 협의된 평가서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총체적인 언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은 학습자가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데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방법 .....	7
II. 신문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 .....	11
1. 신문과 문학교육 .....	11
2. 신문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 .....	15
1) 교수-학습 지도 계획 .....	15
2) 교수-학습 지도 방안 .....	19
III. 『관촌수필』의 교수-학습 방안 .....	26
1. 『관촌수필』의 내용과 형식 .....	26
1) 작가의 삶과 『관촌수필』 .....	26
2) 『관촌수필』의 형식적 특성 .....	34
3) 『관촌수필』의 내용적 특성 .....	38
2. 「일락서산」 교수-학습 방안 .....	48
1) 계획단계 .....	48
2) 진단단계 .....	62
3) 지도단계 .....	64
4) 평가단계 .....	93
IV. 결론 .....	96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이문구 소설의 지도 방법과 학습 활동 .....	48
<표 2> 대단원 개관 .....	55
<표 3> 소단원 개관 .....	56
<표 4> 차시별 수업 계획안 .....	57
<표 5> 1차시 수업지도안 .....	58
<표 6> 2차시 수업지도안 .....	59
<표 7> 3차시 수업지도안 .....	60
<표 8> 4차시 수업지도안 .....	61

## <학습 활동지> 목 차

<학습활동지 1> 줄거리와 구성 파악하기 .....	66
<학습활동지 2> 소설의 인물망 작성하기 .....	68
<학습활동지 3> 소설의 배경 파악하기 .....	70
<학습활동지 4> 작가의 창작 의도 파악하기 .....	73
<학습활동지 5> 소설의 문체 파악하기 .....	76
<학습활동지 6> 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	79
<학습활동지 7> 고향을 그림으로 그리기 .....	82
<학습활동지 8> 취재 수첩 만들기 .....	86
<학습활동지 8-1> 신문기사문 쓰기 .....	87
<학습활동지 8-2> 등장인물과 인터뷰하기 .....	88
<학습활동지 8-3> 사설쓰기 .....	89
<학습활동지 8-4> 독자투고 쓰기 .....	90
<학습활동지 8-5> 광고 만들기 .....	91
<학습활동지 9> 모둠 내 평가하기 .....	94
<학습활동지 10> 다른 모둠 평가하기 .....	95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이문구는 1965년 『현대문학』 7월호에 김동리의 추천으로 「다갈라 불망비」를 발표하여 문단에 나와, 2003년 2월 타계할 때까지 8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다.

이문구의 소설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가져다 준 사회적 변화의 이면을 잘 나타내었다. 그가 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외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장한몽」으로 제 5회 한국창작문학상을 수상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그 후 1978년에는 ‘1970년대 농민’의 전형을 그린 「우리 동네 이씨」로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문구가 이러한 작품들로 상을 받았던 1970년대는 산업화 과정의 이면에 나타난 빈부의 격차·소외 계층의 증가·농촌 궁핍화 현상 등이 부정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표 작가로는 황석영·조세희·윤홍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도시 변두리의 빈민, 노동자 계층의 참담한 삶, 피폐한 농촌 현실 등을 고발하면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요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문구의 소설적 작업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문구는 1970년대 『관촌수필』과 『우리 동네』 연작 이후로도 계속해서 농촌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발표하였는데, 1980년대 『산 너머 남촌』, 1990년대 『장곡리 고욤나무』, 2000년대 『내 몸은 오래 서있거나 걸어 왔다』로 이어지는 그의 작품 경향은 그를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농촌소설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특히 『관촌수필』은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고향의 모습과 인간성을 복원한 수작(秀作)으로, 1970년대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관촌수필』은 사람살이의 도리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겪는 인간 소외와 갈등, 농촌 사회의 피폐와 해체 과정을 작가가 유년시절에 경험한 따뜻한 인정의 세계와 수시로 교체·상응시켰기 때문에 현대적 관점에서도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의식은 현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독자들과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관촌수필』의 이러한 현대적 의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의의로 연계할 수 있다.

『관촌수필』은 문학사적 측면에서는 1970년대 소설의 일반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는 정서적 고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효용성을 준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1970년대 이전의 소설에 학습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의 작품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학 수업에서 1970년대 이후의 작품의 문학적 의의와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1970년대 작품으로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 이문구의 연작 『관촌수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문구의 연작 『관촌수필』과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의 경우에는 1970년대의 사회상과 인간의 진정성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교사 역시도 사투리에 대한 지식 부족과 독특한 지방색을 갖춘 언어문화 때문에 작품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문구의 연작소설 『관촌수필』을 실제 학교 현장에

서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촌수필』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 매체인 신문을 활용하고자 한다.

신문은 주변 정보를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에서 신문의 사용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으며, 사고력과 비판력 등 종합적인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문을 소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관촌수필』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문을 활용한 『관촌수필』의 교수-학습 방안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경험과 학습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2. 선행 연구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작품을 수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신문 활용 교육을 삼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사 검토는 이문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최근 국어 교육에서 신문을 활용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문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문구에 대한 논의는 사회 맥락적인 관점과 독특한 문체에 기인한 형

식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있다.

사회 맥락적 관점으로는 백낙청·김우창·김치수·염무웅 등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문구 소설이 근대화 속에서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 세계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고달픈 삶을 표현하던 1960년대의 작품의 세계는 1970년대 농민들의 삶으로 전환되며 다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변모를 『우리 동네』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문구 소설이 지닌 당대적 시의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제 의식과 문체, 그리고 소설 형식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sup>1)</sup>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평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이문구의 문체의 독특함은 충청방언에 기초한 토속어휘와 긴 문장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체와 기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형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로는 백낙청·김종철의 의견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문구가 지나치게 문체에 의존하여 구성(plot)을 허술하게 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유종호·김윤식·김태현 등으로 토속적인 어휘와 만연체적 사실을 이문구의 독특한 개성으로 언급한다. 이들은 이문구 소설의 미덕을 문체의 독특함이라고 의견을 같이 한다.<sup>2)</sup>

내용과 형식을 통합해 보는 논의는 황현산·진영복 등이다. 이들은 이문구를 농촌소설 작가이거나 독특한 문체의 작가로 한정짓기보다는 이문

---

1)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사』, 1979 봄호.  
김우창, 「근대화 속의 농촌」, 『세계의 문학』, 1981 가을호.  
김치수, 「농촌소설의 의미와 확대」, 『우리시대 우리작가 6 - 이문구』, 동아출판사, 1987.  
염무웅, 「도시-산업화시대의 문학」,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9.

2) 유종호, 「농촌 최후의 시인-그 언어와 문체」, 『다갈라 불망비』, 솔출판사, 1996.  
김윤식, 「문체의 힘」, 『한국현대소설사』, 일지사, 1976.  
김태현, 「문체의 윤회와 농촌의 변모」, 『현대소설』, 1990 가을.

구가 포괄적인 인간의 삶을 탐색한 것으로 보고, 문체 역시 이문구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총체로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은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된 것이다.<sup>3)</sup>

1997년부터 제출되기 시작한 학위논문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문구 문학의 총체적 면모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성의 논문은 최초의 학위논문으로서, 이문구의 소설을 소외된 삶의 체험기, 잃어버린 고향의 기억, 근대화와 공동체의 해체, 인간의 도리에 대한 탐구 등 네 시기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전개양상과 문체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에 의의가 있다.<sup>4)</sup>

전은옥은 이문구 소설의 문체를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그는 이문구 문학을 초기(1965~1972)·중기(1972~1990년대 초)·후기(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감각적인 문체·사설체·의고적 문체를 각각에 대응시켜 분석하였다. 초기소설을 4·19세대의 언어 감각과 연관하여 “감각적인 문체”로 규정한 점은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sup>5)</sup>

조용미는 이문구 소설이 보여주는 형식적·미학적 특성들이 1960~1970년대 근대화 논리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이자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을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초기소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이지만, 초기 소설과 『관촌수필』, 『우리 동네』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못

3) 황현산, 「소설 수필 시」, 『관촌수필』, 출판사, 1997.

진영복, 「인정(人情)의 세계에서 인정(認定)을 세계로」, 『현역중진작가연구』, 국학자료원, 1997.

4) 이대성, 「이문구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5) 전은옥, 「이문구 소설 문체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한 점을 한계로 가지고 있다.<sup>6)</sup>

이청은 이문구 소설을 풍자적 골계와 해학적 골계로 나누어 그의 소설이 가지는 골계적 특성은 전통 문학의 흐름을 계승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up>7)</sup>

이라운안은 『관촌수필』을 도가적 세계관으로 접근하고, 판소리적 성격을 통해 골계미를 구현했다고 다루었다. 그러나 『관촌수필』의 골계미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특질을 골계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sup>8)</sup>

유복순은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사회 문화적 관점과 형식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관촌수필』의 등장인물 중 석공의 존재는 근대화에 저항하는 인간다움의 역설적 제시이며, 작품의 느슨한 구성과 구어체적 담론의 형식은 이문구만의 소설 미학이라고 보았다. 유복순의 이러한 평가는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sup>9)</sup>

다음은 국어 교육에서 신문 활용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다.

이계영은 신문을 가지고 영역별 활동 방안을 제시한 다음, 세 가지씩의 실행 중점을 선정하여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현과 이해 능력이 단순한 언어활동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행과 검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방안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sup>10)</sup>

---

6) 조용미, 「이문구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7) 이 청, 「이문구 소설의 골계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8) 이라운안,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9) 유복순,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0) 이계영, 「신문매체를 활용한 독서 수업이 비판적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강금순은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통하여 언어능력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국어교과 중심으로 구안·적용함으로써, 언어 능력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NIE와 연계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프로그램 및 지도 자료를 제작·적용하였으며, 신문을 가까이 함에 따라 학교 교육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잘 되게 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간접 체험함으로써 사회와 괴리되지 않는 시대성 풍부한 학습으로 언어 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효과적인 언어 사용 능력에 있다고 할 때, 실생활과 밀접한 신문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언어 능력을 확대시키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나,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11)</sup>

윤종원은 '신문을 활용한 어휘 및 읽기지도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어휘와 독해 지도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 지도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신문 활용 학습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해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읽기 활동과 언어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지식과 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신문을 어휘 및 읽기 자료로 활용하여 교과서에만 국한되었던 독해 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sup>12)</sup>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신문을 활용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적용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에서 신문 활용 교육의 연구 성과는 읽기

---

11) 강금순, 「NIE를 통한 프로그램 구안 적용이 언어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현장교육연구 논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12) 윤종원, 「신문을 활용한 독해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와 쓰기 영역의 연구 성과일 뿐 문학교육, 특히 소설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설 수업의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즉 신문과 소설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여 그 관련성을 찾아낸 후, 소설 교육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요소를 재구성하여 『관촌수필』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성격을 “문화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문학교육의 목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학 능력 신장과 공동체 차원에서는 문학 문화 발전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화는 공동체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이에 적응함으로써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인 만큼, 문화교육을 전제로 한 문학교육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학습자의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문학교육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인간의 진정성과 공동체적 질서의 가치가 작품 전반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의 정서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텍스트이다. 그리고 『관촌수필』은 형식적 측면에서 삽화 나열과 이야기 끼워 넣기를 통해서 독자와의 유대를 강화했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관촌수필』은 구비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현대문학의 전통단절을 부정하고, 한국의 구비문학적 요소가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에 기여

했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970년대 산업화 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문체적 측면에서는 홍명희·채만식·김유정이 사용한 구연체 문장의 대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한 구연체 문장은 문자가 형성되기 이전의 이야기체나 판소리 사설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이문구의 문체를 통해서 한국문학의 주체성이 현대소설 속에서 면면히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관촌수필』은 토속어를 사용하여 중앙집권적인 표준어의 획일성에 대항하여 지역적 특징을 살리고 있다. 작품에서 사용된 토속어는 학습자에게 포스트모더니즘사회에서 강조하는 상대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촌수필』의 교육적 의의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신문 활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문이 갖는 기본적 성격과 함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또한 문학에서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II장에서 가능성을 밝힌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III-1장에서는 교사가 탐구학습이나 협동학습의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관촌수필』의 논의점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방안의 전제로 삼기로 한다. 『관촌수필』의 논의점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며, 『관촌수필』이 자전소설인 만큼 작가의 삶과 텍스트와의 관계를 먼저 논한 후 내용과 형식을 논하기로 한다. 그리고 III-2장에서는 II장에서 가능성을 밝힌 교수-학습 방안과 III-1장에서 논의한 텍스트 내적 문제들을 바탕으로 「일락서산」

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일락서산」의 교수-학습 방안은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sup>13)</sup>로 크게 계획하였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인 협동학습을 전제로 한다. 지도 단계에서는 진단 단계를 거쳐 지도 단계를 “개괄적 접근→분석적 접근→종합적 접근”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텍스트의 접근 단계에서는 작품 및 작가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신문 만들기> 활동을 모듈별로 평가하고 협의된 평가서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총체적인 언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13) 본 연구에서 교수-학습 절차 모형은 구인환의 “소설 수업 절차 모형”을 기본으로 삼는다.

구인환,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9, 311면~313면

## II. 신문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영상 매체는 그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어 미디어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로서 미디어 교육은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하고 활용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결국 영상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교육도 미디어 교육의 개념에 포함된다.<sup>14)</sup> 한편 교육계에서는 신문 활용 교육, 즉 NIE(Newspaper In Education)활동도 넓은 의미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한 실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II장에서는 먼저 신문 활용 교육의 개념과 신문과 문학 교육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신문을 문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신문과 문학교육

신문 활용 교육, 즉 NIE란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신문 활용 교육은 ‘살아 있는 교과서(Living textbook)’인 신문을 활용하여 열린 교육, 21세기에 걸 맞는 정보화 교육을 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sup>16)</sup>

---

14)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나남출판, 1995, 5면.

15) 최창섭, 「미디어 교육의 이해」, 제 41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1997, 2면.

16) 허병두,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NIE의 이해와 실제』, 중앙M&B, 1997, 208면.

선진국의 NIE는 학교와 신문사와의 협력 속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며, 신문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실제적인 교수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NIE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훈순은 신문은 유용한 교육적 도구라고 전제하고, “NIE란 신문을 학교 수업의 교재로서 이용하기 위한 신문사와 학교의 공동 활동을 지칭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NIE의 이용은 현실 세계와 유리된 교과서 위주의 원론적인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7)</sup>

한편 최상희는 “NIE는 학교수업(학습)에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에 제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sup>18)</sup>

신문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때는 우선 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 신문인 협회에서 동경의 현장 교사들에게 의뢰했던 연구보고서에서는 ‘신문은 교육을 위해 활용될 만한 가치가 많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우수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9)</sup>

- 최신 데이터·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실제로 있는 일과 있었던 일을 과제로 삼을 수 있다.
-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문제화 한 것을 다룰 수 있다.
- 한 신문안에 폭넓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 여러 사람의 실제 발언, 다른 의견, 다양한 사고방식을 알 수

---

17) 김훈순,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청소년과 인쇄매체』, 1994. 52면

18) 오주석·최상희, 『NIE 지도 전략』, 도서출판 대일, 1999, 50면.

19) 일본신문협회, 연구보고서 「신문과 교육」, 한국신문협회, 1995, 9면~12면.

있다.

- 시간 경과를 따라가면서 조사할 수 있다.
- 누구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다.
- 몇 가지 신문을 비교하며 검토할 수 있다.
- 사진이나 그래프 그림 등을 다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스크랩하고 보존할 수 있다.
- 교사 자신이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깨닫거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문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지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재로서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밝힌, 신문이 교재로서 갖는 문제점으로는 어려운 문장의 사용·국어 교과서와는 다른 표기법·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부각·신문사나 기자의 편견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주변에서 신문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하여 NIE가 교육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 현실과 신문이 가진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신문 활용 방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어과 문학 교육에서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육은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의 형성을 돕는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언어사용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 “문화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철학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자의 문학에 대한 수용과 창작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중점으로 구성하였다.<sup>20)</sup>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의 수용과 창작”은 단순히 문학을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거의 배제하였던 문학의 창작을 개작, 모작, 생활서정의 표현과 서사문쓰기 등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학습자 스스로가 수용하고 창작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학습자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학 창작 교육 방향은 작품의 “창조적 수용→수용과 창작의 통합→창작”단계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통합적 학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수용은 발표·토의·토론·협동학습·현장학습·감상문 쓰기·비평문 쓰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신문을 활용함으로써 문학 교육이 빠져들 수 있는 현실과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읽고 소설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소설을 읽고 기사문의 형식을 빌려 신문 기사문 쓰기, 시사만화를 읽고 희곡의 형식을 빌려 모듬별로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정치면의 기사를 읽고 모의 인터뷰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작품 속에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재판 형식을 적용시켜 모의재판을 할 수 있다. 작품의 결말 바꾸기,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쓰기, 소설을 읽고 기사문의 형식을 빌려 기

---

20)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대한교과서, 1997, 309면~313면.

사문 쓰기, 시사만화를 읽고 회곡 형식을 빌려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광고 사진 등을 이용하여 미적 감각과 글짓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화 그리기 수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에 나온 시를 이용하여 모방시를 쓸 수도 있다. 알고 있는 시를 바꿔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를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에 연재되는 연재소설의 줄거리나 영화평 등을 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시사만화를 읽고 난 후 느낌을 모둠별로 함께 계획을 세워 창작하는 공동 창작시를 쓰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문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 학습자의 개방된 사고력과 현실 적응화를 위한 대안 교육으로는 손색이 없는 교수-학습 매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최신 정보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신문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변화현상을 교육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 2. 신문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

### 1) 교수-학습 지도 계획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사회적·개인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sup>21)</sup>

이는 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 중심 국어교육이란 학습자에 대한 개별화

---

21)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2면~4면.

된 교육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에 기여하는 문학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작가는 작품 형상화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는 식으로 독자에게 물음을 던진다. 그러므로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는 행동은 작가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의 수용은 작품의 세계와 수용자인 독자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창조적으로 작품 세계를 비판하고, 재구성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작품에 대한 이러한 수용 방식은 수용자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의 비판적·창조적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방적인 시각과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문학은 작품의 수용자인 독자가 수용과정에서 역동적인 작용을 하는 데서 구체화 되는 가치물이다. 그러므로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반응을 할 때 문학은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넷째, 문학의 수용은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 중심·과정 중심·활동 중심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학을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매체 및 활동과 통합된 포괄적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소설 『관촌수필』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문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과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신문을 활용한 『관촌수필』 수업은 총 4차시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정보

매체인 신문을 수업에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활용한 협동 학습>과 <신문 만들기>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설과 신문은 서로 다른 장르이지만 서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소설 작품을 읽고 소설의 이야기 양식을 기사문·인터뷰·사설·독자투고·광고문 등 다양한 신문 양식으로 표현하는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비평적 이해”나 “해석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표현 활동은 소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는 한 방안이 된다. 그리고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소설 수업을 전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본격적인 수업 이전에 학습자에게 모둠 별로 신문 1부를 가져오게 하여 신문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신문에 실리는 기사와 독자 투고 등을 소설의 주제에 맞는 글로 써 봄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다. 독창적인 신문의 제목만으로도 다른 모둠과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는 소설 작품 수용 능력과 창작 능력,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양한 신문의 양식을 활용하여 신문을 제작함으로써 이전의 줄거리 위주의 소설 읽기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소설 감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을 신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소설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취재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탐구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신문 만들기> 활동의 주체가 되어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취재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탐구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모듬회의를 거쳐 학습자는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취재와 편집을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다섯째, 모듬별 토의 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다. 모듬의 구성원들은 토론하는 동안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듬 활동은 서로 간의 경쟁보다는 바람직한 의견 교환을 통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어 인성 교육적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한 소설 수업은 작문능력과 논술능력 향상, 어휘력과 독해력 신장 등 다양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토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하고 내면화와 함께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인물망’ 등 생소한 개념에 대한 용어의 설명은 학습 자료에 제시, 학습자의 이해를 돕게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결과물인 신문을 모듬별로 토의하고, 협의된 평가서를 통해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지도하고, 수행평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신문을 활용하여 소설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듬을 편성하여 학습할 때,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존중한다.

- <신문 만들기> 활동에서 역할은 고르게 분담하게 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 기사문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육하원칙을 지켜 작성하도록 하게 한다.
- 교사는 학습자에게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작품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신문을 만들 때는 기사의 방향을 잡아주고 학습자가 쓴 기사를 읽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작업은 모둠 내에서 모둠원들이 해결할 수 있으나, 잘 안 되는 모둠은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평가기준과 배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유의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해 보도록 하겠다.

## 2) 교수-학습 지도 방안

본 연구에서는 분석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과정 중심·학습자 중심, 즉 학습자의 활동이 학습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는 수업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상세화시켜 보도록 하겠다.

## (1)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목표와 평가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목표는 수업의 범위와 방향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 운영 요소이며,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목표 수립과 동시에 평가 계획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는 학습목표와 대응되며, 수업의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평가 계획은 평가를 위한 일반적 수준의 항목을 설정하는 것으로 학습목표가 수업의 실재를 통해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되며, 수업의 진행을 일관성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sup>22)</sup>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매체와 학습자료,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 자료와 평가 도구를 설계하는 것은 수업의 일관성과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수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안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은 토의·협동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형성하고 촉진시키는 수업이다.

따라서 학습 집단은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개 모둠을 5~6명씩 구성하는 모둠학습으로 계획한다. 모둠을 구성할 때는 모둠원들의 성적·흥미·관심 분야·수업 태도·상호간의 친밀성·성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둠 토의를 진행할 때는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공개한 후 전개되어야 한다.

- 발표는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 교사 평가에서는 토의 내용에 대한 상호 비교보다는 토의 시 조

---

2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9, 288면~289면.

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참여도·성실도·창의성을 주로 평가한다.

○ 2회 이상의 모둠 토의를 평가하여, 합당한 점수를 기록에 반영한다.

○ 모둠 토의 수행평가 결과는 학급에 게시하여 학생들의 확인 과정을 갖는다.

이러한 토의·협동형 수업에서 교사는 적절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실의 분위기는 자유스러우면서도 민주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하며, 논쟁 지향적이어야 한다.

## (2) 진단 단계

진단 단계에서는 학습 동기 유발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급적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되, 교사 자신이 의도한 학습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독서 지도 시에는 텍스트의 성격적 특성과 학습자의 자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를 최대한 유발하고 사전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수업에서 다루게 될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생체험, 소설양식과 관련된 생체험의 정도가 진단되어야 한다. 진단을 위한 표준화 도구도 중요하지만, 문학 교사의 창의적인 발문이나 설문지가 마련하여 학습자의 선체험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의 제재가 되는 소설 텍스트에 대하여 폐쇄적인 선입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지도 단계

이 단계는 본격적인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이 가능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감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수업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모둠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습자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자료를 구안하고, 모둠별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교사가 제시한 학습자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인물망’ 등의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학습자료에서 제시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의 능력을 확대시켜야 한다. 즉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설적 체험을 자기의 체험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문학의 수용과 창작”부분과 연계하는 차원으로 <신문 만들기>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격적인 <신문 만들기> 활동 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수행해 왔던 학습자료를 참고로 모둠별 신문제작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을 분담해야 한다. 자료를 참고하되 미비한 사안과 구체적인 활동, 즉 ‘신문사의 이름이나 신문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글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쓸 것이며, 관련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활동은

모둠별 편집회의를 통해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모둠별 토의 수업이므로 토의가 길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 차시별 학습자료의 과제를 제 시간에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제물로 대체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뒤통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매 시간 진행 정도를 조별로 반드시 확인하여 모듬의 편차를 가급적 줄일 수 있게 하며, 뒤통지는 모듬은 교사가 특별히 개별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학습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소설 줄거리 요약하기
- 사건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 내용에 따라 소설의 구성 단계 파악하기
- 소설의 배경 파악하기
- 인물망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주제 파악하기
- 등장인물에 편지쓰기
- 주제를 그림으로 그리기
- 신문에 들어갈 기사문·사설쓰기
- 모의인터뷰 형식으로 등장인물 인터뷰하기

#### (4) 평가 및 내면화 단계

문학 교육이 인간 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단순한 지식의 교육이 아닌

“정서를 함양하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란 점에서 내면화 단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이다. 이는 수업 상황에서 선택된 체제를 교육한 이후에도 구조적으로나 주제적으로 연관되는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는 체험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 소설 교육이 체험의 심화 확대에 기여하고 허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내면화 단계는 지도 단계의 끝 단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소설을 통한 내면세계의 풍요로운 획득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창작 기회를 주어 문학에 대한 친밀감과 적극적인 삼상의 행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품의 내면화는 작품을 학습한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도중에 수시로 일어나는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활동이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의 내면화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평가 단계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지향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실천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결과만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이며 수업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평가는 일련의 수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곧 수업에 환류(feedback)될 때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sup>23)</sup> 이 단계에서는 소설의 내용을 토대로 <신물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방법으로 자기 평가·동료 상호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소설 지도에서 평가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모둠별 토의 학습 과정에서 보여준 학습자의 협동성·적극성·능동성·성실성까지 누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23) 신현재·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 교육』, 박이정, 1999, 344면.

이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의 전제는 학습자 중심의 토의·협동 학습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해 교사는 철저한 수업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학습자간, 교사-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과정에서는 위에 제시한 각 단계들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III-1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교수-학습 방안을 바탕으로 『관촌수필』을 지도하기 전에, 교사가 학습자에게 토의 학습에서 학습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관촌수필』의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 Ⅲ. 『관촌수필』의 교수-학습 방안

『관촌수필』은 1972년 집필을 시작하여, 1977년에 집필이 완결된 작품이다.<sup>24)</sup>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하면서도 따스한 인간애를 그려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또한 『관촌수필』은 작가의 어린 시절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자전 소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관촌수필』의 내용과 형식을 살피기전에 작가의 삶과 작품과의 관계를 먼저 논하고, 작가가 작품에서 사용한 기법과 내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Ⅲ-2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신문을 활용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과 Ⅲ-1에서 논의한 『관촌수필』의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첫 번째 연작인 「일락서산」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관촌수필』의 내용과 형식

##### 1) 작가의 삶과 『관촌수필』

---

24) 이문구, 「일락서산」, 『현대문학』, 1972년 5월.  
\_\_\_\_\_, 「화무십일」, 『신동아』, 1972년 10월.  
\_\_\_\_\_, 「행운유수」, 『월간중앙』, 1973년 3월.  
\_\_\_\_\_, 「녹수청산」, 『창작과 비평』, 1973년 가을호.  
\_\_\_\_\_, 「공산토월」, 『문학과 지성』, 1973년 겨울호.  
\_\_\_\_\_, 「관산추정」, 『창작과 비평』, 1976년 겨울호.  
\_\_\_\_\_, 「여요주서」, 『세계의 문학』, 1976년 겨울호.  
\_\_\_\_\_, 「월곡후야」, 『월간 중앙』, 1976년 겨울호.

이문구는 1941년 4월 12일 충남 보령군 대천면 대천리 관촌 부락(현재 충남 보령시 대관동 갈머리마을)에서 출생했다. 갈머리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바다가 보이며, 멀리는 성주산과 김시습이 머물렀던 무량사 근처에 위치해 있다. 조부는 목은 이색 선생의 20대손이자 토정 이지함 선생의 14대 후손으로 화암서원의 직원이었으며, 돌아가실 때까지 이문구에게 중요한 정신적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은 『관촌수필』 1의 「일락서산」에 실려 있다. 양반의 후예로 태어난 이문구에게 6·25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삶의 충격이었다. 그 이유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형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부친은 군서기, 사법서사 등을 지낸 지식인이었으나 남로당 보령군 총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6·25전쟁 직후 예비 검속되어 치안기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때 둘째 형 역시 아버지를 도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으며, 셋째 형 역시 부친의 연루 혐의로 가마니에 싸여 대천 앞바다에 수장된다. 어머니도 지주의 고명딸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으나, 평생 철저한 내외와 구경 한번 못하는 시가 풍속을 지키다가 이문구가 중학교 2학년 때인 1956년 8월에 타계했다. 이처럼 6·25전쟁은 이문구에게 가족을 다 빼앗아 가버렸고, 외롭고 힘든 유년기를 보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집안 사정은 이문구가 문학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2000년 4월 28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이문구가 독자들을 상대로 한 “『관촌수필』과 나의 여정”이라는 강연에서 잘 말해 주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마다 역전에서 열리는 환송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쳐야했습니다. 장날마다 “멀공통일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며,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군민대회·궐기대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청중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원되고 했지요.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연설을 들은 다음에는 군청 앞까지 늘 시가행진이 벌어지곤 했지요, “공산당의 씨를 말리자”라고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곤 할 때, 나도 따

라 하지 않으며 빨갱이로서 안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열 두 세 살짜리 소년이 “공산당의 씨를 말리자” 하고 악을 쓸 땐 내가 나를 죽이자하고 악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명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개죽음을 당하고 나만 남다보니, 열 살부터 나는 언제 죽지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열 살에서 중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지만, 50년 전의 내게는 언제 죽을 것인지, 저들이 언제 죽일 것인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며 안 죽을 수 있는 하는 것들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sup>25)</sup>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이문구 자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이 때 이문구가 터득한 처세술은 남의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동네에서나 읍내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빨갱이 아들이라는 것으로 남에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부도 잘하면 안 되고, 또 아주 못해도 안 되었지요. 왜냐하면 “빨갱이 아들 잘한다.” 는 소리나 “빨갱이 아들 못한다.” 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중간, 어중간, 어중이떠중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sup>26)</sup>

이문구는 중학교 3년 간 김내성의 장편이나 『구운몽』, 『사씨남정기』, 『십청전』, 『홍부전』 등에 재미를 느끼면서 보낸다. 이 때 동네 여자들에게 밤새 고대소설을 읽어 주기도 한다. 이 시기 읽은 고대소설의 가사체는 그의 소설작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이문구에게 전쟁이 남긴 상흔·굶주림·빨갱이 아들 등의 억압을 위로

---

25) 2000년 4월 28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이문구가 강연한 「『관촌수필』과 나의 문학여정」의 일부를 [www.kacf.or.kr](http://www.kacf.or.kr)의 동영상 녹취록에서 발췌함.

26) 2003년 3월 6일 방송된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TV책을 말하다」의 ‘소설가 이문구의 문학과 인생’에서 이문구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함.

하는 길은 책을 읽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시절 이문구는 책을 통해 ‘나는 어떻게 개죽음을 안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서점에서 우연히 읽게 된 한 수필집에서 우리나라의 시조 개척자 이호우가 좌익혐의로 검거되어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대구 문인들이 “이 사람은 좌익이 아니다. 지금은 어떤 오해로 투옥되어 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탄원서를 내어 풀려났다는 내용을 보고 ‘나도 문학을 하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답을 얻는다.

이렇듯 이문구가 문학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술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문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문구의 문학행로가 시작된다.

그는 17·8세 때에 신춘문예와 잡지의 추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대문학』이나 『자유문학』을 사 볼 형편이 안 되어 헌 책을 빌려 보곤 했다. 그러던 중 소설가 김동리가 우리나라 최고의 극우파 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프로문학에 대항하여 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한 김동리가 자신을 보호해 주고 신분을 보장해 준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김동리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평론이나 문학사를 읽다 보니까 김동리 이상 우리나라에 우익 문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문학가가 되어서 오래 살려면 김동리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김동리의 우산 속에 들어가야 한다. 김동리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해 주면 나를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뒤로 진짜 김동리 선생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께서는 30여전 동안 저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생존 전략 하나로 문학을 택했습니다. 기왕이면 김동리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불순한 거지요. 27)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던 이문구는 1959년 19세 때 서울로 상경

27) 앞의 동영상에서 일부를 발췌함.

한다. 이후 건어물 장사와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무쇠바퀴에 발가락을 잘리기도 한다. 이런 밑바닥 체험은 1970년대 초반까지 그의 소설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애정과 우직한 신뢰로 이어지는 작가적 자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61년에는 서라벌 예대에 을류장학생<sup>28)</sup>으로 입학한다. 여기서 김동리 선생과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고, 김동리는 이문구의 든든한 신원보증인이 되어 준다.<sup>29)</sup>

이문구는 1963년 22세 때 『현대문학』에 김동리 선생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리고 1966년 발가락이 절단되어 치료하던 중 「백결」이 『현대문학』 7월호에 추천 완료된다.

김동리는 추천기에서 “우리나라 소설도 문장의 맛으로 예술이 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으며, 가장 이채로운 스타일리스트 한 사람을 얻게 되었다”라는 심사평을 썼다. 이는 이문구의 독특한 개성을 알아본 평이었다.

1968년 27세 때 첫 직장인 『월간문학』에서 제작·배본·수금·광고를 맡고, 편집업무도 배운다. 이 시기에는 「두더지」, 「김탁보전」, 「담배 한 대」, 「이삭」, 「가을소리」, 「몽금포타령」 등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월간문학』 편집장이 되고, 「암소」, 「장한몽」을 발표하여 비평계의 주목을 받는다.

신동욱은 「장한몽」을 새로운 리얼리즘을 성취한 판소리 계열의 걸작이라는 평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암소」는 토속어로 된 문체로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

28) 서라벌예술대학(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전신)에서는 당시에 우수 입상자(콩쿠르 상장 소지자)들에게 갑류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입선이나 가작 수상자들에게는 을류장학금을 지급했다. 실기나 면접에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학생에게는 병류장학금을 지급했다. 강의실 안의 60명 가운데 반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한승원, 「순수와 참여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운 이문구』, 중앙M&B, 2004, 155면.

29)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진영에 속하는 작가의 길을 갔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사제의 도리를 지켰다. 앞의 동영상 참조함.

31세 때는 「해벽」을 발표하고, 『관촌수필』 연작을 시작한다. 그리고 첫 단편집 『이 풍진 세상』을 정음사에서 간행한다. 『관촌수필』의 발표는 이문구로 하여금 전쟁이 데려간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빨갱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한다.

1973년 32세 때, 5년간 근무한 『월간문학』을 퇴직하고, 『한국문학』 창간에 전력을 다한다. 그 후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회>를 발족하고 실무 간사를 맡는다. 이 협회는 김지하와 이호철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사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 훗날의 <민족작가회의>의 모체이다. 1975년 11월 18일에는 동료문인과 함께 절필을 한다.

그러나 이후 1년 만인 1976년에 『관촌수필』 중 「관산추정」, 「여요주서」와 「영경귀 잎새」를 집필해 창작에 복귀한다. 36세 때 임경애와 늦은 결혼을 하고, 경기도 화성군 발안면의 쇠면 부락으로 이사를 한다. 이후 3년간 움팡집에 살면서 개와 닭을 기르고 보리를 수확한다. 이 생활은 『우리 동네』 연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1977년에 장남 산복이 태어나고, 『관촌수필』과 『영경귀 잎새』, 산문집 『아픈 사랑 이야기』를 간행한다. 1978년 37세에는 농촌 현실을 본격적으로 그린 「우리 동네 이씨」로 한국작가문학상을 수상한다. 수상 이유는 농촌현실을 탁월하면서도 독보적으로 개척했다는 것이었다. 1979년에는 장녀 자숙이 태어나고, 산문집 『지금은 꽃이 아니어도 좋아라』를 간행한다. 이 산문집은 농촌 생활과 자신의 출신과 성장배경이 들어있다. 이 해에는 무크지 『실천문학』의 편집위원이 되는데, 이 잡지는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적 색채가 강하여 폐간·복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0년에는 화성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다. 그 이유는 원고 청탁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다, 사회적 영향 때문이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시작되

면서 이문구는 고초를 당하게 된다. 콩트집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못허나』가 계엄사령부에 의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국보위에서는 이문구를 정치쇄신특별법해당자로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1981년 40세 때 연작소설 『우리 동네』를 간행한다. 이 작품은 70년대 농촌의 타락상과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1983년 정치 활동 규제가 해금되고, 이 해에는 「개구쟁이 산복이」, 「올보 자숙이」 등 동시 25편을 발표한다. 이 동시는 김주연에 의해 주목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 동시 중 몇 편은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1984년 『실천문학사』 발행인으로 취임하고, 장편 「산 너머 남촌」 연재한다. 1987년에는 단편집 『다가오는 소리』, 콩트집 『몸으로 살려온 사내』를 간행한다.

1988년 <민족작가회의>에서 김동리를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 단체에서 탈퇴한다. 이문구는 이를 두고, “반생(半生)을 부모로 섬겨 온 스승이 궁지에 몰린 것에 대한 인간적 도리였다”고 말한다. 즉 이문구는 1974년 이래, <자유실천문인협회>라는 진보적인 문단에 몸을 담아 왔으나,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해 탈퇴한 것이다. 이 해에는 동시집 『개구쟁이 산복이』를 간행했다. 이 후 1989년에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충남 보령군 청라면 장산리로 내려온다. 여기서 그는 B형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술을 끊고, 사회 활동에도 거리를 둔다. 그러던 중 1990년 김동리 선생이 쓰러지자 상경하여 석 달 간 간병을 한다.

그는 문단에서 “남의 길·흉사를 잘 챙기는 사람”, “남이 어려울 때 먼저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자세를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철저하게 실천했던 것이다.

1992년 『매월당 김시습』을 출간하자, 각종 마스크의 호평이 쏟아지고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매월당 김시습』은 매월당의 저항정신과 유려한 한문이 두드러지는 글이다. 이것은 산만하고 요설적인 구어체와는 거리가 먼 표현이었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았으나,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어체가 환영받지 못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1993년에는 『관촌수필』이 서울방송(SBS) 창사 특집극으로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1993년에는 『유자소전』이라는 실전 연작소설을 간행했다. 『관촌수필』의 드라마 방영은 그에게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떼게 하였다. 그리고 대천시의 자랑인 소설가 이문구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문구는 한 강연에서 “중앙 문단에서 데뷔한 것은 오래됐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시민헌장 제정위원으로 위촉받은 것은 꼭 42년 후 복권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관촌수필』이 드라마로 방영된 1992년은 충청지역에 SBS가 안 나오던 때였기 때문에, 이문구는 주말극으로 6개월 이상 방영되는 동안 드라마 테이프를 사다가 다방마다 돌렸다고 한다.

좌익집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이문구에게 그의 가족사(家族史)를 담은 『관촌수필』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송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해방감이었다.

이후로 이문구는 서울과 대천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2000년에는 『내 몸은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경기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강의를 하던 중 위암의 발병하여 투병하다가 2003년 1월에 타계하였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이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등 보수와 진보 문인단체 모두에서 활동을 했고, 모두와 어울리며 모든 구둑을 친 문단의 일꾼이었다.<sup>30)</sup>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문단사

---

30) 2005년 1월 28일에 방영된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인물현대사」 이문구편에서 프로그램 타이틀을 쓴 성공회대의 신영복교수는 그를 일컬어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명명하였다.

상 최초로 통합문인장으로 치러졌다. 이문구는 자신의 유골을 화장하여 관촌 부락 앞산에 뿌려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어떤 문학관이나 문학상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6·25때 숨진 아버지와 형들의 묘가 없는 것이 화장을 한 이유일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추측했다.

하지만 이문구의 동료 문인들은 2004년 이문구의 문학 정신을 기르기 위해 그의 일기와 주변 문인들의 글을 모아 『그리운 이문구』라는 회고집을 발간했으며, 2004년에는 중앙 M&B에서 『이문구 전집』을 발간했다. 또한 2005년에는 보령시와 문인들이 주축을 이뤄 이문구문학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2) 『관촌수필』의 형식적 특성

### (1) 연작 형식

연작소설(連作小說, roman-cycle)이란 ‘독립된 완결 구조를 갖는 일군의 소설들이 일정한 내적 관계를 지니면서 연쇄적으로 묶여있는 소설 유형<sup>31)</sup>’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연작소설은 여러 편의 독립된 삽화들을 모아 더 큰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고안해 낸 소설의 형태를 말한다.

『관촌수필』은 관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가의 어릴 적 경험을 수필처럼 쓴 자전적 소설로서, 1의 「일락서산」, 2의 「화무십일」, 3의 「행운유수」, 4의 「녹수청산」, 5의 「공산토월」, 6의 「관산추정」, 7의 「여요주서」, 8의 「월곡후야」 이상 8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작장편소설이다.

이문구는 『관촌수필』의 작가 후기에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도

---

31) 김주희, 「한국 현대 연작 소설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35면.

리일 것 같아 말머리에 「일락서산」을 넣었고, 「여요주서」나 「월곡후야」는 지금도 관촌 부락에 살고 있는 친구나 친척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며, 고인에 대한 추도문 같은 「공산토월」은 훗날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으로 문학을 떠나 적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연작 1~5편은 ‘현재→과거→현재’로 서술된다. 이 다섯 작품은 거의 같은 순서로 한 인물이나 고향과 관련된 일화들을 나열한 뒤, 인물의 죽음까지를 들려준다.

연작 6~8편은 성인된 ‘나’가 고향에 갔다가 겪은 일을 서술하는 형식이다. 이들 각각의 단편들은 연관성에 따라서 그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틀 속에서 분절적으로 병치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연작 단편은 각각의 완결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덩어리로 모일 때는 주제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관촌수필』 연작의 소제목들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모습과 변모해 가는 고향의 모습에 관계를 맺고 있다.

차례대로 보면, 「일락서산(日洛西山)」은 ‘서산에 지는 해처럼 쓸쓸한 쇠락’, 「화무십일(花無十日)」은 ‘열흘 가는 꽃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 「행운유수(行雲流水)」는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으나,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음’, 「녹수청산(綠水靑山)」은 ‘푸른 물, 푸른 산의 한 때’, 「공산토월(空山吐月)」은 ‘사람이 없는 적적한 산에 뿌려지는 외로운 달빛’, 「관산추정(冠山芻丁)」은 ‘관산에서 꼴 베는 사내’, 「여요주서(與謠註序)」는 ‘도와주려다 잘못되어 그 뜻을 일일이 밝혀야 하는 구구한 신세’를 암시하고, 「월곡후야(月谷後夜)」는 음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달(月), 곡(谷), 뒤(後), 밤(夜)의 한자들로만 이루어져 비애의 정서에 부합하는 제목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재의 ‘나’에 의해 회고된다. 현재의 ‘나’는

회상하는 인물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것이다. 소설 속의 사건은 연계적인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나'의 기억 속에서 삽화처럼 나열된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재현하는 인상적인 삽화는 인물의 성격을 강조한다.

## (2) 1인칭 시점

『관촌수필』은 작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성장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 일 수밖에 없다.

1인칭 시점 소설로는 6·25전쟁이나 빈곤을 형상화한 김원일의 「어둠의 혼」과 「노을」이 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관촌수필』의 주인공 '나'가 「노을」의 '갑수'처럼 부역자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주인공의 상처가 깊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촌수필』의 주인공은 전쟁의 상처보다는 전쟁 전 마을의 모습·풍습·인물 묘사·그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체에 있어서도 「노을」의 객관적인 서사와는 판이하다. 『관촌수필』에서는 화자는 기억하고 있는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일화에 치중한다. 또한 주인공도 어린 화자·조부·아버지·어머니·옹점이·대복이로 겹치게 되고, 내용 전개상 1인칭의 혼란스러운 양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산만하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삽화로 연결하여 통일되게 전개하려면 1인칭 시점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자전소설의 특성인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식의 매력을 살릴 수 있다. 질서있는 구성이 아닌 자유로운 형식에서 1인칭 시점의 사용은 가장 적절 할 것이다.<sup>32)</sup>

---

32) 퍼어서 라보크, 『소설기술론』, 일조각, 1995, 127면.

### (3) 개성적인 문체의 사용

이문구 소설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對話)는 충남 서부 해안 지역의 토속적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문구는 고향의 방언과 토속어를 적극 활용하여 소설 문체의 한 획을 긋고 있다.

다음은 「일락서산」에서 ‘나’의 집을 드나들던 노인과 나, 할아버지의 대화의 일부분이다.

서원말 사람으로 우리집을 가장 자주 드나든 이는 언제나 패랭이를 쓰고, 두루마기도 없이 짚세기를 펜 채 구력을 메고 다니던 환갑 늙은이였다. 그는 무시로 드나들어 나하고도 피차 얼굴이 익어 있었는데, 그는 동구 앞이나 신작로가에서 놀던 나를 만나면 나보다도 먼저 허리를 굽신대면서 인사를 했다.

“되련님, 나리만님 지신감유?”

그것이 그가 하는 인사말이였다.

“예, 지방 사랑에 지셔유.”

나는 늘 그렇게 대답했는데 한번은 나아서 사랑 앞에 이르러,

“할아버지 손님 왔슈.”

“뉘라느냐?”

“위편 뇌인 양반유.”

했다가 나중에 호된 걱정을 듣기도 했었다. 할아버지는 그 패랭이 쓴 늙은이더러 늘,

“오냐, 수뵻이 왔느냐.”

마치 선머슴이나 다루듯이 하대를 했던 것이다.<sup>33)</sup>

보령 지역 토박이들조차 “이문구 소설을 읽었을 때 처음엔 이해가 안되고, 말도 어색하며, 생소하여 낯설다.” 라고 할 만큼 이문구 소설어는 실제 보령 지역어보다 더 고어(古語)적이고, 토속적이다. 이러한 토속적 방언의 사용은 토속적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기

33) 이문구, 이문구 전집 8 『관촌수필』, 랜덤 하우스 중앙, 2004, 41면.

여한다.

또한 작가는 토속적 문체의 사용으로 자신이 농촌 안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토속적 방언의 사용은 농촌 생활의 강한 현장성과 함께 골계미를 주어 작품의 미적 형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문구는 문체를 통해 전통적인 삶을 동경하면서, 자연의 순환의 질서에 순조롭게 적응한 공생의 소박한 삶을 다시금 추구해 나가려고 하였다.

이문구 문학의 깊이는 방언을 활용한 정감 어린 문장을 쓰며, 농촌문화속에서 전승되어 온 비유(比喩)와 속담(俗談)이 풍부하여 청각에 우선한 이야기체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문구의 이러한 담론은 서구의 번역체 문장에 대항하는 주제적인 작가의 노력이며 우리 고유성과 가치를 구현한 것이다. 동시에 근대화란 거대함에 항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3) 『관촌 수필』의 내용적 특성

#### (1) 농촌 공동체의 복원과 진정한 인간성 추구

근대소설의 주인공들은 본질적으로 고아이자 실향민이다.<sup>34)</sup> 이런 점에서 볼 때 『관촌수필』의 화자는 근대소설의 주인공과 유사하다.

『관촌수필』에서 화자는 근대소설 양식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고향 상실의 체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실한 고향을 기억으로 붙잡으려는 욕망에서 오는 긴장은 『관촌수필』에 나타난 화자의 기본 태도이다. 작가가 소설의 제목을 수필(隨筆)이라고 한 것도 그와 같은 연유에서 기인한

---

34) 서영채,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17~18면.

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가는 『관촌수필』 1~5편에서 잃어버린 고향의 공동체를 복원해 내고 있다.

『관촌수필』 1인 「일락서산」은 성년이 된 ‘나’가 고향인 관촌 부락을 둘러 조부에게 성묘하고, 고향에서의 옛 일을 추억하는 내용이다.

작가가 고향에 돌아와서 본 것은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해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었다. ‘나’는 산업화되어 변해 버린 고향을 바라보면서 유년 시절의 고향과 조부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러한 회상은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갖게 한다. 그것은 조부의 가르침 즉, 이조(李朝)적인 정신이다.

할아버지는 구십 평생 망건이나 탕건은 물론 오뉴월 삼복에도 벼신 한번 벗지 않았다. 어머니가 시아버님 두려워 농촌에선 더없이 편리한 작업복인 몸빼라는 것이 고쟁이 같대서 못 입어보고 웅침이가 끝내 단발머리를 못 해 본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다.<sup>35)</sup>

위의 부분에서는 “반상의 질서”라는 조부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조부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반상의 질서”를 작가가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복고주의자의 관점<sup>36)</sup>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고색창연한 이조인으로 그려지는 조부는 전근대적인 인물이다. 조부가 상징하는 세계는 봉건적 신분질서가 존재한다. 조부는 가문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고, 모든 생활양식에서 유교적인 법도를 지켰다. 반상의 질서는 마을 제삿날 차려진 음식이 할아버지에게 먼저 올려지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작가가 생각하는 그리움의 대상은

---

35) 이문구, 앞의 책, 39면.

36) 김만수, 「땅의 근본과 사람의 도리에 대한 성찰」,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320면.

“반상의 질서”이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원적인 가치 즉, 미덕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조부의 정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핏줄로서의 조부 자체와 그 시절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관촌수필』에는 전근대적인 인물인 조부와는 상반되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지는 무던히도 대범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처럼 가리고 찾는게 없던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대범함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받았던 소년 시절의 아둔함이다.

그런데 언제나 두렵게 느껴졌던 것은 그런 무장 경찰관이 아니었다. 오히려 잡범이나 파렴치범의 자식이 아니란 데에서 오는 엉뚱한 자부심과 떳떳함을 느껴 주눅든 적이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굽은 철장 안에 태연하게 담소하던 아버지가 두렵기만 했던 것이다. -중 략-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사상을 관철하고자 하던 그 굳건한 정신이 외경스러웠던 것이다.<sup>37)</sup>

‘나’는 조부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도 아버지를 몹시 존경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인물인 조부와 급진적 진보주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이 공존하는 인물이 바로 ‘나’이다. 아버지의 대범함을 존경하였고, 아버지의 “굳건한 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나’가 존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상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굳건한 정신”에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역시 조부와 마찬가지로 핏줄의 대상이며, 추억의 대상이다.

---

37) 이문구, 앞의 책, 52면~53면.

그렇다면 『관촌수필』에서 조부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역사적인 관점에서<sup>38)</sup> 볼 때 조부는 1940년대 현실, 마멸되어 가는 양반층의 최후의 반영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가 해체되기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고향’을 상징하는 인물로 설정할 수 있다.

「화무십일」은 난리 시절 장리쌀로 연명해 가면서도 피난민에 대한 정(情)이 각별했던 어머니와 날일밖에 모르던 운영감 일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무십일」에서 이문구는 자발적인 협동과 상호 부조의 전통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작가는 슬이 엄마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인간형을 비판하고 있다.

「행운유수」는 ‘나’의 기억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추억을 점유하고 있는 옹점이의 이야기이다. 또한 옹점이는 기억 속에 “인정의 화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가는 옹점이를 충직한 봉사과 사랑의 미덕을 지닌 인간형으로 제시한다.<sup>39)</sup>

그녀는 동네에 떠들어온 모든 비렁뱅이와 동냥중, 그리고 나병환자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우리 집에 와서 살던 머슴들은 그녀의 마음씨에 녹아 자진하여 부엌일까지 엮들이 해주며 도우려고 했던 것이다.<sup>40)</sup>

옹점이의 인정주의는 현실에 순응하기만하는 순박한 인물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제시대, ‘나’의 아버지는 지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랑방은 아버지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붐볐다. 그래서 심야의 가택 수색이 수시로 이루어지곤 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운 여름밤에

---

38) 염무웅, 앞의 책, 330면.

39) 김만수, 「전래적 농촌에 대한 회고적 시각」, 『작가세계』 1992년 겨울호, 78면.

40) 이문구, 앞의 책, 88면.

도 맘 편히 옷 한번 벗고 잘 수도 없던 때였다. 사복 경찰들은 한밤의 가택 수색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언사와 폭행을 예사로 하였다. 그리하여 순박한 농민들은 힘의 권력 앞에서 잔뜩 겁을 먹었다. 하지만 옹점이는 사복 경찰들에게 심야의 가택 수색을 당하면서도 대찬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사복 경찰들에게 심야의 가택수사를 당하던 옹점이의 대찬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년아 누구를 찌러봐.”

우악스런 목소리를 거둡 들고 내가 사랑에서 나오자, 옹점이는 시커먼 순경 손에 적삼셔를 죄여 잡힌 채 안마당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이 댁 부엌데기란 말여유.”

그녀는 독이 시퍼렇게 오른 눈으로 순경을 찌어보며 화통을 삶아 먹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낮선 순경은 막무가내면서 옹점이의 몸수색을 시작했다.

-중 략-

순경은 그녀의 결찍한 구습에 질려 어찌지 못하다 말고, 사랑 재떨이에 웬 담배꽂초가 그리 수북하냐고 다시 휘어서 물었다.

“이 동네 마실꾼들은 담배도 못 핀대유.”

“이 동네 마실꾼들이 누구냐 말여?”

“바깥 마실꾼을 안이서 위치기 알유. 내외허는 댁인디……”

“동네 마실꾼인디, 모란 공작 같은 켈련을 피여?”

“허가 읍이 잎담배 밀어 피면 쩍혀간다메유?”

“너 뭇 살 먹었네?”

“뻬살두 먹구 찹쌀두 먹구, 열두가지 곡식 다 먹었슈” 41)

옹점이의 대범한 태도는 ‘나’의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지하 조직에 대한 어떤 사상의 신념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녀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킨 것이다. 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

---

41) 이문구, 앞의 책, 85면.

는 것, 또 나의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옹점이의 주체성이었다. 작가는 옹점이를 통해 순박한 심성과 희생의 정신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수청산」은 이문구의 가장 친한 친구 대복이의 이야기이다. 대복이는 이데올로기가 상충하는 난리 통에서 무지(無智)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시 순박함과 인정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문구는 그와 함께 했던 시절을 ‘다시금 꿈결 속에 본 대자연(大自然)처럼 그지없이 아름답고, 은하(銀河)를 헤엄쳐 가는 듯한 심란한 향수에 잠기게 하며, 때로는 나 혼자나 알고 죽을 것 같이 비밀스럽고, 혹은 물려줄 수 없는 소중한 재산처럼 여겨지곤 한다.’<sup>42)</sup> 며 최고의 수식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문구는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통해 인간정신의 선량한 근본을 부각시키는 인물로 대복이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시점이기에 실존의 고뇌와 이해타산에 대한 계산이 없고 인내와 숙명, 자기각성에 대한 동경이 작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

「공산토월」은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웃과 남을 위해 몸을 버릴 수 있었던 석공의 이야기이다. 석공은 근대화 이전의 농촌 공동체 속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석공은 지식인(知識人)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석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행동으로 농부의 일을 열심히 했고, 마을의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였다.

그는 자기 집 농삿일만 부지런을 핀 것이 아니었다. 이웃 동네 크고 작은 일에도 부러 빠진 적이 없었다. 아니 그가 없으면 되는 일이 별로 없을 지경이었다. 추렴이나 울력으로 마을을 곳집을 고친 다거나 붓둑 보수가 있게 되면 으레 석공 앞장서 나서야만 버그러지고 뒤틀림이 없었다. -중 략- 7월 삼복 맹벌 아래서 남의 무

---

42) 이문구, 앞의 책, 118면.

덤을 파고, 8월 장마 곳은 밤비 속에서는 갓난 애 무덤을 꾸려냈다. 동네에서 죽은 어린애 관은 거의 석공 혼자서 지고 올라가 매장해 주기 일쑤였던 것이다. 들어나마나한 공치사 몇 마디 외엔 아무런 보수도 없었던 일들, 마치 그런 일에 봉사함만이 자기의 직분이며 도리인 것처럼, 수술하다 목숨을 거둔 피투성이 이웃 송장도 혼자 업고 나르고, 술 취해 장바닥에 자빠진 사람도 도맡아 구완해 주기를 일삼고 있었다. 상한 시체 염을 해주고, 목은 산소 면레가 있어 파분(坡墳)이 되면, 썩은 관을 먼저 뜯어내던 일도 맡아 놓고 석공이었다.<sup>43)</sup>

이러한 행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으로 타인에 대한 지극한 보살핌이었다. 석공은 근대화되고, 도시화된 인간상과는 커다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주의를 실천한 인물로 나타난다. 석공은 작가에게 있어 현대 도시 사회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친화적이고 전인적인 인물이다. 석공은 ‘나’에게 온몸으로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의 비극적 결말을 지켜보았다. 석공이 5·16이 나던 해 죽었다는 사실은, 근대화로 인하여 석공 같은 전근대적인 인물이 종언했음을 의미한다. 석공의 지고지순한 인간미, 그리고 희생정신은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났지만, 석공의 죽음 앞에서 양반집 귀공자인 ‘나’의 울음은 그의 숭고함을 더하게 한다.

## (2)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관촌수필』은 6~7편인 「관산추정」, 「여요주서」와 「월곡후야」에서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7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농촌의 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촌수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세편의 연작은 전반부 연작과는 다른 모습이다.

---

43) 이문구, 앞의 책, 186면.

「관산추정」에서 복산이는 두 시간대를 잇는 인물이다.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친 힘들지만 아름다웠던 과거의 시대와 산업화가 슬슬 틀어 올라오는 시대, 이 두 시대를 잇고 있다. 이것은 복산이가 『관촌수필』 1~5편에서 제시된 인물들과는 다름을 의미한다.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하지만 언제나 마을의 굶은 일은 도맡아 해왔던 아버지 유천만처럼, ‘나’의 친구 유복산 역시 아버지의 이 한 가지 특성이 유전되어 내려와 마을의 굶은일에 주저 없이 발 벗고 나선다. ‘나’에게 복산이는 그의 아버지 유천만이다. 이것은 복산이가 과거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지닌 채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인물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관촌 부락도 어디 못지않게 변했다. 뽕개진 뽕재에는 여자 중학교가 보다 높은 봉우리로 솟아 있었으며, - 중 략 - 사람보다도 더 못 미더운 동네로 변해버린 거였다. 그러나 유복산이는 거연(居然)했다. 오직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그였다. 뽕재가 변하고 바다가 변했음에도 그 한 사람만은 아직 다치지 않고 남겨두고 있었다.<sup>44)</sup>

이렇듯 달라진 세태 속에서도 복산이는 강건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온통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린 고향에서 복산이 혼자만이 다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다. 이는 ‘나’에게 있어서 변화된 고향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점이 되어준다. 변해버린 고향 역시 어린 시절 그림던 고향과 다를 것 없다는 사실을 복산이로 인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관산추정」을 전환기로 하여 이야기는 공동체적 농촌의 모습과 근대적인 농촌의 모습이 공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완벽하기만 해 보이던 공동체적 농촌이 산업화의 입김으로 인해 관촌 부락은 도시와 도시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아이들의 교육과 생존에까지 방해를 받는다.

---

44) 이문구, 앞의 책, 252면.

이것은 「여요주서」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여요주서」와 「월곡후야」는 현대 농촌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물들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와 도덕적 위기감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편은 인물을 강조한 이전의 연작과는 달리 인물을 매개로하여,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요주서」는 신용모를 매개로 하여 이전 공동체적 미덕이 해체된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여요주서」의 내용은 신용모가 장에 나왔다가 성문이가 잡은 장끼를 대신해서 팔아주려다가 최순경의 단속에 걸려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억지로 조서를 꾸미는 내용이다. 「여요주서」는 신용모가 순회 재판소에서 권위적인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인 신용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

“이 사람 정신 못 차리는구먼. 이 따위가 있어? 이거, 자기가 진 죄를 자기 어린 자식에서 덮어쉴 참여? 뭐 이런 것 두 있어. 싸가지 읊는 새끼, 야 너 좀 일어나봐. 일어나!”

소리와 함께 앉아 있던 용모는 얼굴을 천장으로 뛰우면서 뒤로 나가떨어져 뒤통수를 바람벽에 이겨붙였다. 구두 뒤통이 허벅지를 찍더니 아랫배를 올라왔다가 옆구리를 제긴 다음 엉덩이를 까뭉기고 어깻죽지로 올라왔다.<sup>45)</sup>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억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으로 나타난다. 신용모의 사건 판단에는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관(官)의 위압적인 자세가 개입된다. 신용모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마지막 장면은 힘없는 농민의 안타까운 저항일 뿐이다.

---

45) 이문구, 앞의 책, 321면.

「월곡후야」는 김선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병폐를 말해 주고 있다. 「월곡후야」의 내용은 김희찬이 도시에서 번역 일을 하다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향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시작된다. 김희찬을 찾아가 화자가 들은 이야기는 6학년이 된 순이가 낙태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2년 전 이사 온 봉자아버지(김선영)의 짓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밝혀진 그날 밤 희찬의 동생인 수찬이와 그의 친구들은 봉자아버지에게 당장 이사를 가라고 뉘달한다. 그러나 소설은 수찬이 주막집 큰딸과 여행 가방을 들고 고향을 떠나는 것을 화자가 본 것으로 끝난다. 어린 딸의 친구를 추행한 김선영은 봉자어머니와 돈을 주고 합의를 했고, 그것으로 법적 처벌을 끝냈다. 돈으로 추행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동네 청년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부도덕함에 분개한다. 하지만 동네 청년들 역시 자신 또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돈으로 잘못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분노를 젊은이들은 폭력으로 처리한다. 관촌 부락의 근대화는 오직 ‘물질적으로 잘 살자’라는 것으로 관(官)과 민(民)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후반부 연작에서 이문구는 관촌 부락의 변화를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는 소용돌이로 규정한다.

작가는 전반부에서 복원한 농촌공동체의 질서가 이미 현실에서는 해체되었음을 보여주고, 농촌은 근대화에 의해 생존까지 방해받는 처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상실된 고향의 공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농촌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감한다.

## 2. 「일락서산」의 교수-학습 방안

### 1) 계획단계

#### (1)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관촌수필』 고찰

『관촌수필』을 본문에 수록하고 있는 문학교과서는 총 18종 중 4종이다.<sup>46)</sup> 문학교과서에서 다루지고 있는 부분은 「일락서산」이 대부분인데, 상문출판사 간행의 교과서에서는 「화무십일」이 실려 있다. 또한 이문구의 다른 소설인 「유자소전」이 두산출판사에서 간행된 문학교과서 상권에 실려 있기도 하다.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이문구의 소설의 지도방법과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 <표 1> 이문구 소설의 지도 방법과 학습 활동

출판사 및 작품	지도 방법 및 학습활동
블랙박스 「일락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원 : II. 문학의 가치와 기능</li> <li>- 소단원 : 3. 문학과 개인 공동체</li> </ul> </li> <li>◎ 지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속에 그려진 고향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피면서 감상하도록 한다.</li> <li>- 우리 사회에서 농촌 공동체가 지닌 의미를 생각하도록 한다.</li> </ul> </li> <li>◎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소설의 주인공이 고향을 찾아오면서 처음 가진 느</li> </ul> </li> </ul>

46) 블랙박스 상권, 지학사(주) 하권, 문원각 상권, 민중서림 상권에 수록되어 있다.

	<p>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말해 보자.</p> <p>1-2) 할아버지와 왕소나무는 작가의 회상을 이끄는 매개가 된다. 이 소재들이 떠올려 주는 ‘고향’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p>2-1)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살던 당시 농촌 마을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상이나 표현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이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말해보자.</p> <p>2-2) 작가가 극화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 ‘옹점이’의 삶의 내력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p> <p>2-3) ‘옹점이’에 대한 기억이 각별한 이유를 현대인의 모습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자.</p> <p>3-1) 이 소설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인물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주인공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 말해 보자.</p> <p>3-2)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릴 적 고향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가 고향에 가지는 의식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어떤 의의가 있을지 토론해 보자.</p> <p>3-3) 이 소설은 ‘잃은 육친과 쫓겨난 고향에 바치는 최대의 문학적 헌사요, 낡아 길러 준 땅에 되돌리는 가장 귀한 값음’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p>
<p>민중서림 「일락서산」</p>	<p>◎ 관련 단원 - 대단원 : II. 문학의 갈래와 문학 활동</p> <p>◎ 지도 사항 -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비교하기</p> <p>◎ 학습 활동 1. 무진기행의 시점과 비교하여 말해보자. 2. 어휘와 문체를 중심으로 두 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p>

	지 이야기 해 보자.
문원각 「일락서산」	<p>◎ 관련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원 : Ⅲ. 소설의 수용과 창작</li> <li>- 소단원 : 4. 소설의 시점과 문체</li> </ul> <p>◎ 학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글이 시점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ol>
지학사(주) 「일락서산」	<p>◎ 관련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원 : I.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li> <li>- 소단원 : 5. 광복이후의 문학</li> </ul> <p>◎ 지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 소설의 일면적인 특질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다.</li> </ul> <p>◎ 학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작품은 작품의 서술자가 자신의 소년시절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연작작품이다. 이 작품의 구성상 특질을 말해 보자.</li> <li>2. 이 작품에서 ‘나’는 변모된 고향에서 실향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왕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li> <li>3. 이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ol>
상문출판사 「화무십일」	<p>◎ 관련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원 : Ⅲ. 갈래별 수용과 창작</li> <li>- 소단원 : 3. 매듭짓기</li> </ul>

	<p>◎ 지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 구성, 시점, 문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본다.</li> <li>- 특히 윤영감 일가에 대한 추억을 중심으로 한 액자식 구성에서, 시점의 변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체상의 특징을 염두해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p>◎ 학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물의 성격을 말하고, 그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li> <li>○ 어머니</li> <li>○ 윤영감</li> <li>○ 솔이엄마</li> </ul> </li> <li>2. 『관촌수필』이 지닌 구성상 특징을 말해보고, 그것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li> <li>3.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작품의 서술자는?</li> <li>2) 이 작품의 시점은?</li> <li>3) 이러한 시점의 효과는?</li> </ol> </li> <li>4. 『관촌수필』에서 사용된 사투리를, 자신의 고장의 사투리로 바꾸어 보고, 문학 작품에 쓰인 사투리의 효과에 대하여 발표해 보자.</li> </ol>
<p>두산 「유자소전」</p>	<p>◎ 관련 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원 : V.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li> <li>- 소단원 : 3. 근대의 지향과 문학의 명암</li> </ul> <p>◎ 지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작품은 이익만을 추구하고 부와 사치에 접어드는 현대인들의 삶의 자세를 다소 전근대적으로 살아가는 한 인물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li> </ul>

	<p>문학의 정체성과 전통성 확보를 통해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며 감상한다.</p> <p>◎ 학습 활동</p> <p>1. 이 작품에서는 충청도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서술자의 목소리도 무엇인가 비웃거나 비꼬는 듯 한 어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글을 다시 읽고, 주어진 서술방식의 예를 세 가지씩 찾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도 방언</li> <li>○ 비속어</li> <li>○ 서술자의 비꼬는 어투</li> <li>○ 서술자의 전지적 서술</li> </ul> <p>2. 이 작품에서 다소 변형시키기는 하였으나, 유자가 자신의 이야기는 직접 전달하는 부분과 작가가 유자에 대해 느낀 점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부분이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가 전달하는 부분</li> <li>○ 유자에 대해 느낀 점</li> </ul> <p>3. 이 작품에서 주인공 유자의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찾아보고, 아래와 같이 활동해 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 상황들이 왜 웃음을 유발했는지 생각해 보자.</li> <li>2) 웃음을 유발하는 소설적 장치들이 우리 현대 사회나 현대인들의 어떤 면을 비판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li> </ol>
--	--

(2) 수록부분과 작품 전체와의 관계 고찰

소설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데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유의해서 수록해야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부분 수록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을 선정하는 일이며 이때 내용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47)</sup> 우선 이 작품의 주제는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의 비애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일락서산」에서 작가는 특별한 사건이나 플롯을 제시하지 않고, 마치 수필(隨筆)과도 같이 담담하게 고향의 옛 모습을 정감적인 문장으로 회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 ‘나’가 관촌 부락을 둘러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일락서산」은 『관촌수필』 연작이 시작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3) 학습목표 설정

문학과목의 지도는 문학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적 사고와 문학적 의사소통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하고, 문학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 현상과 문학 문화의 본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언어 예술인 문학 작품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문학이 지닌 형식미인 치밀한 구성과 문체, 상상적 세계의 탐험을 통해 미적 감동과 정서의 고양에 이르는 ‘문학의 미적 기능’을 맛볼 수 있다. 더불어 인간을 탐구하고 인생을 표현한 문학에서는 인간 존재의 해명과 삶의 진실을 탐구하게 하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통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취할 수 있다.

---

47) 유제덕, 「문학교육에 있어서 제재 선정 및 지도 방법」,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 60집, 1997, 175면.

그러므로 소설 교육의 학습목표 설정은 이러한 문학 교육의 의의와 관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설정하는 것은 교사의 자율적 권한이다. 하지만 교사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재를 분석하고, 종합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관촌수필』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고향과 공동체적인 삶에 연관 지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인간의 참된 본성과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한 『관촌수필』의 학습목표는 ‘고향이 지닌 심층적인 의미 설명할 수 있다’와 ‘작품이 가진 문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정할 수 있다.

학습목표를 설정할 때, 교사는 문학 이론의 일반론과 문학 교육의 목표, 소설 교육의 목표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수업 계획에 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관촌수필』의 전체 줄거리·소설의 배경·인물·문체 등에 대한 파악을 선행한 상태에서 수업 계획에 임해야 하며,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의 수업에 있어서는 『관촌수필』의 교수-학습 방안을 다음과 같은 수업지도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 대단원 개관<sup>48)</sup>

대 단 원	Ⅱ. 문학의 가치와 기능	
설 정 취 지	대 단 원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이 인지적·정의적·심미적 복합 구조물임을 이해한다.</li> <li>◎ 문학이 가치의 산물임을 이해한다.</li> <li>◎ 문학이 인식적·미적·윤리적 기능과 가치가 있음을 이해한다.</li> <li>◎ 문학이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함을 이해한다.</li> </ul>
	관 련 단 원 안 내	<p>이 단원에서는 문학이 가치지향적임을 이해하고 작품에 형상화된 가치를 탐구하는 한편, 효용론적의 입장에서 문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내면화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p>
지 도 상 유 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론의 관점에서 문학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li> <li>◎ 문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독자가 작품을 통해 가지게 되는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본다.</li> </ul>	

48) 블랙박스사에서 간행된 문학교과서 상권을 기준으로 단원개관을 하였다.

<표 3> 소단원 개관

소단원	3. 문학과 개인 공동체
학 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li> <li>◎ 문학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li> <li>◎ 문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본다.</li> <li>◎ 문학은 민족문화의 가치 창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li> </ul>
단 원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문학이 가지는 기능과 가치 지향적 성격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원이다.</li> <li>◎ 문학은 인식적·미적·윤리적 기능을 가지며, 개인의 삶을 고양하고 공동체의 공함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문학은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언어적·문화적 실천 활동이다.</li> </ul>
작 품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락서산」의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작품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기능을 가진다.</li> <li>- 문학 작품은 삶과 세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기능을 가진다.</li> <li>- 문학 작품은 미적 감성을 만족시키고 정서적인 면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적 기능을 가진다.</li> <li>- 작품에 나타난 고향의 심층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li> <li>- 작품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성을 알아본다.</li> <li>- 토의를 통하여, &lt;소설 신문&gt;을 제작 할 수 있다.</li> <li>- 소설을 재창조하는 활동을 통해 생각을 발전시키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운다.</li> <li>- &lt;소설신문&gt;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li> </ul> </li> </ul>

<표 4> 차시별 수업 계획안

차시	학습단계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학습 형태
1	계 획 단 계		◎ 학습목표 제시	-일제학습 -모듬학습
	진 단 단 계		◎ 학습 동기 유발 ◎ 학습자 중심의 토의 학습의 모듬 편성	
	지 도 단 계	텍스트 개괄적 접근	◎ 작품 줄거리와 구성 파악하기 ◎ 인물·배경 파악하기	-모듬토의 -협동학습
2	지 도 단 계	텍스트 분석적 접근	◎ 작가의 창작 배경 파악하기 ◎ 작품의 단어와 문체 파악하기	-자기주도 학습 -탐구학습
3	지 도 단 계	텍스트 종합적 재구성	◎ 작중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 작가가 말하고자하는 고향 이해하기	-모듬토의 -협동학습 -탐구학습
4	평 가 및 내면화단계		◎ 토의 내용을 <소설신문>으로 재구성하기 ◎ 다른 <소설신문>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평가하기 ◎ <신문 만들기>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개별학습 -협동학습 -모듬과제 해결학습

<표 5> 1차시 수업지도안

단원명	Ⅱ. 문학의 가치와 기능 3. 문학과 개인 공동체		차 시	1/4
학 습 목 표	1. 「일락서산」의 줄거리와 구성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일락서산」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자 료	수업지도안, 학습 활동지	수업형태	협동학습, 토의학습	
수 업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비 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입 (10분)	◇ 인사 ◇ 학습자 흥미 유발 - 텍스트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선체험 진단 - 텍스트에 대한 선체험 진단 ◇ 학습목표 제시 ◇ 토의·협동 학습 위한 모둠편성, 모둠대표와 기록자 선발	◆ 인사 ◆ 학습에 대한 흥미 획득 - 배경지식 자유롭게 발표 - 배경지식 자유롭게 발표 ◆ 학습목표 숙지 ◆ 모듬원을 익히고, 모듬 토의에서 유의할 사항을 숙지	개 별 발 표	
전 개 (5분)	◇ 수업을 위한 교실 정돈 ◇ <학습 활동지>를 배부	◆ 학습 분위기 숙지함 ◆ <학습 활동지>를 받으면, 확인	토 의 준비	
활 동 (30분)	모 둠 활 동 1 (10분)	◇ 줄거리와 구성단계 파악하기 - 모듬 별로 「일락서산」의 줄거리를 발표하게 함 - 「일락서산」의 구성 단계를 발표하게 함	◆ 줄거리와 구성단계 파악하기 - 모듬원들은 「일락서산」의 줄거리를 토의를 통하여, 발표함 - 모듬원들은 토의를 통하여, 구성단계를 파악함	협 동, 토 의 학 습
	모 둠 활 동 2 (10분)	◇ 인물 파악하기 - 인물망을 제시하여,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파악하게 함	◆ 인물에 대하여 토의하고, 인물망 그리기 - 모듬토의를 통하여 등장 인물의 관계와 성격을 정리하여 발표함	
	모 둠 활 동 3 (10분)	◇ 배경파악하기 -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배경을 파악하도록 함	◆ 배경 토의 및 발표하기 - 신문기사와 작품을 통하여, 작품의 배경을 토의하고 발표함	
정 리 (5분)	◇ 수업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 정리하기 ◆ 과제 기억하기		

<표 6> 2차시 수업지도안

단원명	Ⅱ. 문학의 가치와 기능 3. 문학과 개인 공동체		차 시	2/4
학 습 목 표	1. 작가의 창작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가의 문체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료	수업지도안, 학습활동지, 신문기사		수업 형태	협동학습, 토의학습
수 업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비 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입 (5분)	◇ 인사 ◇ 전시 학습 확인 ◇ 학습자 흥미유발 ◇ 학습목표 확인 ◇ 학습내용 안내	◆ 인사 ◆ 전시학습 상기 ◆ 학습에 대한 흥미 획득 ◆ 학습목표 숙지 ◆ 학습내용 숙지	개 별 발 표	
전 개 (5분)	◇ <학습활동지> 배부 ◇ 신문기사 제시	◆ <학습활동지> 확인 ◆ 신문기사 확인		
활 동 (35분)	모 둠 활 동 1 (20분)	◇ 창작 배경 파악하기 -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하여 토의하게 함	◆ 창작배경 파악하기  -모둠원들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작가의 창작 의도에 비추어 토의하여, 발표함 - 기록자는 토의 내용을 기록함	협 동, 토의 학습
	모 둠 활 동 2 (15분)	◇ 작품의 문체 파악하기 - 작가의 문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제시함 -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토의하게 함	◆ 작품의 문체 파악하기  - 모둠토의를 통하여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토의하고, 발표함 - 기록자는 토의 내용을 적음.	
정 리 (5분)	◇ 수업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 정리하기 ◆ 과제 기억하기		

<표 7> 3차시 수업지도안

단원명	Ⅱ. 문학의 가치와 기능 3. 문학과 개인 공동체		차 시	3/4
학 습 목 표	1. 작중 화자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중 화자의 삶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료	수업지도안, 학습활동지, 신문기사		수업 형태	협동학습, 토의학습
수 업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비 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입 (5분)	◇ 인사 ◇ 전시 학습 확인 ◇ 학습자 흥미유발 ◇ 학습목표 확인 ◇ 학습내용 안내		◆ 인사 ◆ 전시학습 상기 ◆ 학습에 대한 흥미 획득 ◆ 학습목표 숙지 ◆ 학습내용 숙지	
전 개 (5분)	◇ <학습활동지> 배부 ◇ 신문기사 제시		◆ <학습활동지> 확인 ◆ 신문기사 확인	
활 동 (35분)	모 둠 활 동 1 (20분)	◇ 작중 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 작가가 작품 속 주인공에게 쓴 편지를 제시함 - 작가의 편지를 참고로 하여, 작중 화자에게 편지를 쓰게 함	◆ 작중 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 작가가 쓴 편지를 읽고, 작중 화자에게 편지를 씀	
	모 둠 활 동 2 (15분)	◇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고향 이해하기 - 「일락서산」에서 '나'의 변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고향 이해하기 - '나'의 고향을 그림으로 그리고, 발표함	
정 리 (5분)	◇ 수업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 정리하기 ◆ 과제 기억하기	

<표 8> 4차시 수업지도안

단원명	Ⅱ. 문학의 가치와 기능 3. 문학과 개인 공동체		차 시	4/4
학 습 목 표	1. 토의 내용을 신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2. 재구성한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자 료	수업지도안, 학습활동지, 상호평가지		수업형태	협동학습, 토의학습
수 업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비 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 입 (5분)	◇ 인사 ◇ 전시 학습 확인 ◇ 학습자 흥미유발 ◇ 학습목표 확인 ◇ 학습내용 안내	◆ 인사 ◆ 전시학습 상기 ◆ 학습에 대한 흥미 획득 ◆ 학습목표 숙지 ◆ 학습내용 숙지	개 별 발 표	
전 개 (5분)	◇ <학습활동지> 배부	◆ <학습활동지> 확인		
활 동 (35분)	모 둠 활 동 1 (25분)	◇ <신문 만들기> 활동하기 -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게 함	◆ <신문 만들기> 활동하기 -모둠원들은 토의를 통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함	협 동 , 토 의 학 습 , 개별학 습
	모 둠 활 동 2 (10분)	◇ <신문 만들기> 활동 평가하기 - 모둠 내 평가하게 한 후, 모둠 간 평가하게 함	◆ <신문 만들기> 활동 평가하기 - 모둠 내 평가를 한 후, 모둠 간 평가를 함.	
정 리 (5분)	◇ 수업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 정리하기 ◆ 과제 기억하기		

## 2) 진단 단계

### (1) 사전지식 진단

진단 단계는 수업 목표를 고려해서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쪽지 시험이나 구두 질문을 이용한 진단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일락서산」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선체험을 진단하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관촌수필』에 대한 시청각 자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도 좋은 교수방법이 될 것이다.

작품과 연관된 사전 지식 진단 단계에서는 독자인 학습자가 갖고 있는 텍스트에 관한 직·간접체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작품의 문학적 단서들을 제시할 때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의 문학적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심리적 긴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일락서산의」 진단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주변에서 산업화나 개발로 인하여 고향 상실의 비애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한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충남 보령의 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사시다 시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는 수영도 잘 하시고, 갯벌에서 들어가서 조개나, 소라 등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뛰놀던 바다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논이 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해 하십니다. 고향에 가시면 예전에 뛰놀던 바다가 논이 된 것을 보고, “세상 참 좋아졌다!” 하시면서도 한 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유학 중, 김민지)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 ‘제목’은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글의 소재와 주제·내용 등이 제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목은 책의 얼굴이다. 따라서 책을 고를 때 제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상상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설의 제목을 보고 느낀 자신의 인상과 느낌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음은 『관촌수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체험을 발표한 학습자의 예이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선생님께서 읽어보라고 하셔서, 서점에 가서 책을 찾으려고 수필코너에 갔더니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점 주인에게 책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소설 코너에서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설인데 제목을 수필로 붙인 이유는 수필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소설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락서산」이라는 한자의 뜻은 ‘서산에 지는 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인공 ‘나’가 6·25전쟁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했고, 근대화로 인하여 고향의 몰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화외고 1학년 김민정)

또한, 『관촌수필』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 지식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의 구체적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더 설정할 수 있다.

· 『관촌수필』을 읽은 적이 있는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저는 『관촌수필』을 읽고, 말로만 듣던 부모님의 어린 시절 고향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흐뭇한 인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충청도 사투리와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여, 많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경인고 1학년 이한나)

저는 몇 달 전에 한국문학전집에 수록된 『관촌수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라는 공간이 저와는 너무 별개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의 사투리 또한 내겐 정감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영어를 해석하는 것처럼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은 꼭 드라마 <전원일기>의 것과 비슷하여 식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인고 1학년 하인희)

- 『관촌수필』은 몇 개의 연작으로 되어 있는가?

『관촌수필』은 「일락서산」과 「화무십일」, 「행운유수」, 「녹수청산」, 「공산토월」, 「관산추정」, 「여요주서」, 「월곡후야」 이상 8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는 장편소설입니다.

(경인고 1학년 홍지혜)

-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연작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관촌수필』 연작 제 1편인 「일락서산」으로, 주인공인 ‘나’가 오랫동안 고향에 되돌아 왔으나, 고향의 변한 모습을 보고 허탈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인고 1학년 김한나)

- 이 소설이 창작된 197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아는가?

이 소설은 1970년대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농촌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이촌향도현상으로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났고, 도시로 이주한 농촌 사람들은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씌어진 소설이 『관촌수필』입니다.

(이화외고 1학년 김민정)

### 3) 지도단계

#### (1)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

##### ① 줄거리 및 구성 단계 파악하기

지도 단계의 시작은 작품 읽기이다. 소설은 단위 작품 전체가 하나의 미적 구조를 가지므로 소설 교육의 제재로 사용되는 텍스트는 당연히 작품 전체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주어진 수업 시수나 교과서 편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소설 교육에 있어 작품 읽기는 반드시 수업 시간에 실시할 필요는 없다.

2주전에 과제 학습을 통하여 작품을 읽게 하고, 수업 중에는 작품의 줄거리를 작성하여 소집단별로 윤독한 뒤 잘된 것을 추천하여 발표하게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 중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여 보충 설명하여야 한다.

#### <지도 시 유의 사항>

- 소설의 줄거리가 구성의 단계가 아님을 지도한다.
- 소설의 구성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 학습자의 활동 결과를 비교·대조하면서 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활동지 1 : 예시>

◆ 「일락서산」 모듬 활동 1 :  
**줄거리와 구성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보자.

‘나’는 오랫동안 고향을 등지고 타관에 떠돌아다니다가 20여년 만에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 차 고향을 찾는다. 그러나 기억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어릴 때의 고향의 모습은 이제 찾을 길이 없게 되고, 소년 시절의 보금자리였던 옛집은 이제 기둥대호 기울어졌다. 게다가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어른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고, 어릴 때의 정다운 친구들은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만날 길이 없다. 고색이 창연하던 옛 고향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맴돌 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고향의 모습은 근대학의 물결에 의하여 변모되어 가고 있는 생소한 고장인 것이다.

하지만 조상에 대한 금지된 한산 이씨의 족보와 삼강오륜 속에 살다 간 전형적인 이조인(李朝人)이었던 할아버지는 소년시절 나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교훈은 지금에 있어서도 나의 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 소설의 구성단계를 파악해 보자.

발 단	전 개	위 기	절 정	결 말
‘나’는 모처럼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다.	동네 어귀의 향 소나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옛 모습이 사라진 고향의 모습에 안타까워한다.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할아버지를 회상한다.	집안일을 거들었던 봉건의 모습을 떠올린다.	읍내로 돌아가면서 쓸쓸해 한다.

## ② 인물·배경 파악하기

작품 읽기를 과제로 처리할 경우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인물·배경 등의 파악은 텍스트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학습자는 모둠 토의를 통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한 텍스트를 다른 학습자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빠뜨린 부분까지 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인물을 찾고,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등장인물의 목록을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소설의 ‘나’가 어릴 적의 고향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성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행위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일락서산」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와 조부, 아버지, 어머니, 옹심이이다. 이들의 관계를 ‘인물망’으로 그려보게 하고, 자신이 작성한 ‘인물망’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인물망’을 비교하게 한다. 그리고 모둠별 토의 과정을 거쳐 부족한 점과 잘못 이해한 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게 한다.

### <지도 시 유의 사항>

- ‘인물망’이란 단어가 생소하므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인물망’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등장인물간의 갈등을 찾게 한다.

<학습 활동지 2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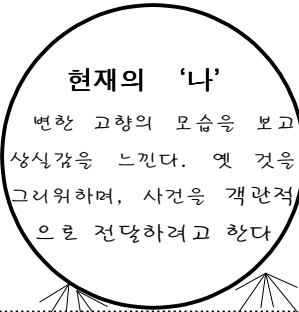
◆ 「일락서산」 모둠 활동 2 :

소설의 '인물망'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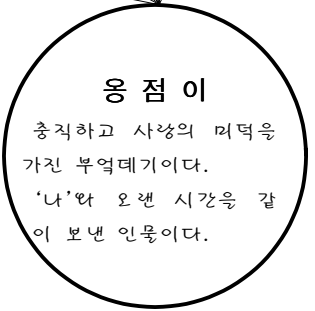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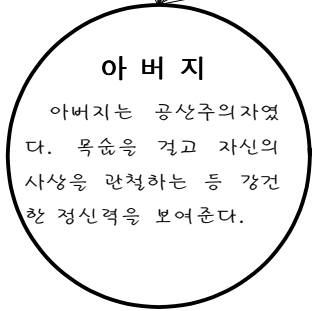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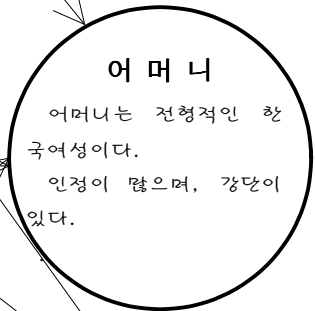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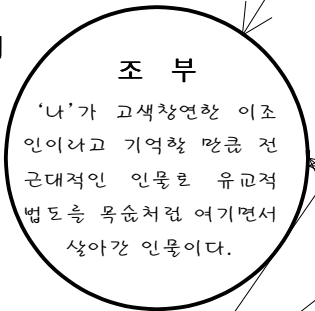
모둠 이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



과거



### ③ 배경 파악하기

『관촌수필』의 무대가 된 관촌 부락에 대한 신문기사와 사진<sup>49)</sup>, 지도<sup>50)</sup>를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여, 학생에게 소설의 실제 배경과 위치를 보여주는 것도 배경을 파악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작품에서의 배경은 작가가 회상한 ‘어린 시절의 옛 터전’과 ‘변해버린 현재의 관촌 부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설의 ‘나’가 살던 농촌 마을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 주는 대상이나 표현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작품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도 시 유의 사항>

- 배경에 따라서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49) 「문학이 머문 풍경 소설가 - 이문구의 고향 보령편」, <서울신문> 2005년 1월 27일자.

50) 위와 같음.

◆ 「일락서산」 모듬 활동 3 :

소설의 배경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 어린 시절의 고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

마을 동구 앞 술장수 티뭉인 채씨 부부네 송방과 사철 풀무집이 바쁘던 원애꾸네 대장간, 장축이네가 차린 뽕밭집 주막과 무허가 노천 이빨소, 주막과 대장간 어중간에 있던 견정 연색터의 조강지 같은 초가 세 채 :

지팡이에 굽은 허리를 의지한 할아버지가 당신의 첫 모습을 굽어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항몽 아끼시던 마가목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는 역시 탕건을 받쳐 쓰고, 공당 따고자 아래 허리춤에서는 안경집이 대롱거렸으며, 허연 수연을 바깥쪽에 낚으면서 구부정하게 서 있음이 천연하였다.

태고로부터 복두칠성과 똑같은 위치로 배치되어 앉았던 일곱 덩이의 바위는, 한겨같이 옛날 그대로를 지키고 있었다.

○ 모듬의 의견

주인공이 예전의 모습을 더듬으면서 회상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은, 이제는 식량원이 되어버렸다는 주인공의 상상감과 옛것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 (2)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

### ① 텍스트의 창작 배경 파악하기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이 끝나면, 소설 작품을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이 단계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텍스트의 창작 배경의 파악이다. 이는 개괄적 접근과 분석적 접근의 연결고리로 개괄적 접근의 성격도 강하다.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상황과 그의 세계관에 따라 텍스트를 창작한다. 그러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일락서산」의 창작 배경에는 변해가는 농촌의 풍경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는 작가가 농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에 있다. 농촌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문명화되어 가는 것,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일락서산」을 창작 배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발의 현장과 그에 따라 잃어가게 되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그리고 개발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토론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한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는 작가의 창작 배경과 관련하여 좋은 토론 제제가 될 것이다.

#### <충남 보령시 숨어있는 관광자원 개발 열기><sup>51)</sup>

보령시는 국내 문학인들과 함께 『관촌수필』 및 『우리동네』 등의 소설로 유명한 명천 이문구(李文求, 1941-2003)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9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명천의 고향인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명천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천 문학관이 세워지면 대천해수욕장은 문학의 향기가 흐르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

상할 것”이라며 “문학관이 계획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위의 기사문은 이문구의 고향 보령시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문구 문학관 건립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교사는 이 기사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일락서산」에서 작가가 비판한 점, 산업화와 개발이 주는 장·단점,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지도 시 유의 사항>

- 찬반토론에서는 학습자들이 각자의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중재하여야 한다.

---

51) <연합뉴스>, 2005년 05월 15일자 기사문.

◆ 「일락서산」 모듬 활동 4 :

작가의 창작 의도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문학관의 건립도 작가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고향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닐까?

문학관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	문학관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
<p>문학관 설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고향을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는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다.</p> <p>생전에 고향 사랑이 대단했던 많은 작가 역시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문학관 건립에 찬성할 것이다.</p>	<p>비록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작가는 고향의 무분별한 개발을 원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p> <p>고향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고향은 더 많은 외지인들로 관광지로 인해 더 문살을 얹게 될 것이다.</p>

## ② 문체 파악하기

작품에 사용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어와 향토색 짙은 고유어는 토속적인 정서를 강하게 풍기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체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체는 작가가 「일락서산」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문단 생활 전체에서 사용한 것임을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그리하여 작품에 나타난 문체의 특징이 작가의 문학적 특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래의 기사문은 이문구가 소설에서 구사한 단어들이 사전으로 정리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통해 학습자는 이문구가 소설에서 사용한 단어와 문체가 광범위하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학습자는 작가가 「일락서산」에서 사용한 단어와 문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문구 소설어 사전』 6000여 어휘 정리> 52)

이문구씨의 소설을 읽다보면 생생한 입담과 우리말을 요리조리 다루는 솜씨에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작품 속에서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말이 툭툭 튀어 나오기도 한다. 가령 ‘짐서방은 워치기 된 거여. 오두 가두 앓구 가물치 콧구녕이니’에서 가물치 콧구녕이(사람이) 한번 간 뒤에는 통 소식이 없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민충환 부천대학교수가 엮은 『이문구 소설어 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이문구 언어를 해독할 열쇠를 모아 놓은 책이다. 그 동안 김유정, 채만식 등의 어휘사전이 출간된 적은 있으나 현역작가로서는 첫 시도다. 이 책은 『우리 동네』, 『관촌수필』 등 작가의 대표적인 소설과 산문집 30여 권을 텍스트로 삼아 해석이 힘든 어휘와 표현 6000여개의 뜻을 적고, 실제 소설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용례를 자세하게 달았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어를 연구, 지난 95년 『임격정 우리말 용례사전』을 펴냈던 민교수는 작가 사후에 그 특유의 소설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나온 토속어 사전 등 갖가지 사전을 참고했지만,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고유의 표현들은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현역작가인 이문구를 선택했다. 그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해석이 힘든 어휘를 골라 정리한 뒤, 작가를 직접 찾아가 일일이 물어보고 만들었다. 민교수는 “하루 종일 모래를 체에 쳐서 작은 금 알갱이를 골라내는 사금 채취공의 정성으로 지난 5년 동안 작업을 했다.” 며 “시시콜콜한 물음에도 화 한번 내지 않고 성의껏 답변해준 이문구 선생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한승주기자

<지도 시 유의 사항>

- 작가가 사용한 단어와 문체가 다른 소설과 다른 차이점을 말해 보게 한다.
- 민충환 교수가 『이문구 소설어 사전』을 엮게 된 이유를 토대로, 작품의 문체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

52) <국민일보>, 2001년 1월 16일자 기사문.

◆ 「일락서산」 모듬 활동 5 :  
소설의 문체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관촌수필』에서 작가 사용한 문체를 토론해 보자.

토 의 내 용
<p>이 작품은 1인칭 독백체로 서술된 독특한 문체의 구성 형태를 지닌다. 즉 일방적인 사건 전개와 필연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인 서술자의 이야기꾼들라도 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직접 말하기 때문에 마치 수필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p> <p>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어와 향토색 짙은 고유어를 잘 살려 쓰으로써,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p> <p>그러므로 화자의 고향에 얽힌 추억을 서술하면서 유년 시절 경험한 농촌 공동체의 따뜻한 인정의 가치를 돌아보는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끔 해 준다.</p> <p>또한, 고풍스러운 말투, 함축적 소양 없이는 어려운 어구, 명운의 추예로서 알 수 있는 세간과 풍속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그리고 작가가 사용한 문체는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잊게 된 독특한 고유어와 사투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 또한 이러한 문체를 작품의 문체를 부각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p>

### (3) 텍스트의 종합적 재구성

텍스트의 종합적 재구성은 소설 지도의 최종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적 접근 단계에서 이루어진 소설의 부분적·개별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 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고향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일락서산」의 주인공인 ‘나’의 삶이 자기체험으로 간접화될 때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다양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① 작중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일락서산」에서 작중화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작품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주제를 이해한 학습자는 작품을 통해서 얻은 가치를 내면화하여 현실 생활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락서산」의 주인공 ‘나’는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에 대한 회한(悔恨)과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 ‘나’의 심정을 고려하여, 주인공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활동은 작품의 주제를 학습자에게 내면화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지 쓰기 활동에 앞서, 작가가 등장인물에게 쓴 편지를 제시하여 준다면 학습자는 주인공 ‘나’의 심정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편지문은 작가가 「행운유수」의 주인공인 옹점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교사는 지도 이전에 「행운유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관촌수필』의 옹점에게><sup>53)</sup>

옹점씨.

가끔 가다가 물은 흘러도 여울은 여울대로 있다는 옛말이 문득 가슴에  
엿힐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여 카수, 그릇을 잘 깨어 덜렁쇠, 산에  
가면 나무 잘 타고 옷 잘 타고, 바다에 가면 게 잘 잡고 조개 잘 잡고,  
마을 가면 널 잘 뛰고 그네 잘 뛰고, 들어오면 밥 잘 태우고, 빨래 잘  
태우고, 살갓 밑에서 쥐 잘 잡고, 처마 밑에서 새 잘 잡고, 다듬이질은  
잘해도 다리미질은 못하고, 시침질은 잘해도 바느질은 못하여 선머슴으  
로 안팎 동네가 알아주었던 옹점씨, 그러나 틈만 나면 장다리와 찢레나  
무순과 수영을 꺾어나가 소꿉질을 해주었던 내 소꿉동무 옹점씨가 불현  
듯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가슴에 옛말이 엿히곤 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여덟 살이나 손위인 옹점씨가 열일곱 살 나던 해 가을에 시집  
가기 전까지도 나는 여전히 옹쩍이라고 부르면서 너나들이를 하고, 아망  
을 부리며 심술을 떨었지요. 그렇지만 나는 식구 중에서 옹점이 그 중  
만만해서 그랬고, 옹점씨는 만이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어서 어른들의 께  
를 받지 못해 집에서 배도는 내가 안스럽고 안되었어서 동무를 해주자  
니 아무리 몽니 사납게 굴어도 무조건 받아 준 것을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옹점씨는 식구였지요. 비록 우리 외가에서 교전비의 맏딸로  
태어나고, 내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미리 업저지로 들어와서 어머니의  
해산바라지를 하고, 나를 업어 기르며 부엌바닥에서 뼈가 여물긴 했지만  
정으로는 호적에 없는 동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옹점씨는 나를 업어 기르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꿉동무만 해줬던  
것도 아니고요. 그릇을 깨거나 빨래를 삶다가 놀리고 혼나면서 흘렸던  
눈물은 나로 하여금 남의 딱한 일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감정을 길러  
주었고, 혼삿말이 오갈 때마다 남몰래 웃었던 웃음은 나로 하여금 남의  
좋은 일에 내 일처럼 좋아할 수 있는 심성까지 싹 틔워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옹쩍이가 아니라 누나였던 거지요. 나이 삼십이 넘어서야  
깨달은 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이전부터 만날 수가 없으니 누  
나라 부르고 싶어도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53) <동아일보>, 1997년 10월 25일자.

작가가 「행운유수」의 주인공이 옹점에게 쓴 편지를 신문에 기재한 것임.

옹점씨가 전쟁터에 신랑을 빼앗기고 몹쓸 시집살이에 견디다 못해 가출하기 전에 찾아와서 “내가 돈 벌면 학비 보태줄텐게 부디 공부 잘혀. 후계 옛말 허면서 살게” 하며 다짐을 받고 간이래 어언간 사십년. 세상을 뜰 나이도 아닌데 TV드라마에서는 옹점씨가 수십 회에 걸쳐 나와서 떠들었어도 정작 옹점씨는 이날토록 무소식이니 대체 어떻게 된 노릇 입니까.

지금도 열일곱 살짜리 소꿉동무의 얼굴만이 눈에 밝히는 옹점씨여, 누님이며, 바라건대 어느 하늘 아래에서나 건재하시기를.

<학습활동지 6 : 예시>

◆ 「일락서산」 모둠 활동 6 :

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모둠 이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 작중 화자에게 편지를 써 보자.

「일락서산」의 주인공에게

창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을, 「일락서산」을 읽는 동안에는 이흠 모를 쓸쓸함에 가슴이 저며 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며, ‘식향편이 되었구나!’라고 한탄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선생님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옛날 살았던 고향의 모습이 얼마나 정겨웠는지 궁금합니다.

『관촌수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라, 고향의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무엇이 우리에게 고향을 잃게 만들었는지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관촌'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농촌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관촌은 어린아이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하루해를 보내는 곳이며, 사슴살이의 복적거점으로 가습 설레는 곳이기도 할 것 이구요. '관촌'은 아마도 사람 사이의 정이 있고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있고, 땅에 뿌리박은 삶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보신 현재의 '관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전쟁과 근대화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선생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찬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의 거울일 것입니다. 고향을 상징하는 인물인 할아버지가 보여 주는 가부장적 질서 속의 유교 윤리가 최선의 것이며,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 만능과 배급주의에 물들고, 정신 없이 '바깥'을 숭상하기에 바쁜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모습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향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화려한 것이든 초라한 것이든 상관없이 '뿌리'인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이는 결코 가지울 수 도 열매를 맺을 수 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정서적 고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양분을 거기서 뽑아 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이 가을 저에게 주신 선물은 이와 같습니다.

큰 깨달음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2005년 11월 어느 날

『관촌수필』의 애독자 드림.

## ② 작가가 말하려고 한 고향을 그림으로 표현 해 보기

주인공 '나'에게 있어, 고향은 나고 자란 곳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작중 화자에게 고향은 인간 본연의 안식처이자, 생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타향살이 끝에 찾은 고향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

른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고향의 변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는 활동은 주인공 '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도 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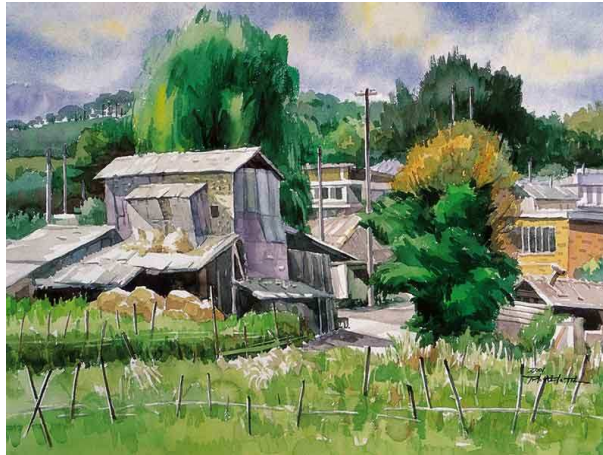
- 모둠 구성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화자의 심정을 구체화하게 한다.
-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내는 것 보다는, 화자의 심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그려내게 한다.
- 그림으로 표현한 후에는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 「일락서산」 모듈 활동 7 :

고향을 그림으로 그리기

모둠 이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 주인공 ‘나’가 고향을 방문하여 느낀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그림 설명

박한서의 소설 『그 여자네 집』에서는 살구나무가 깔밭한 봄의 정경, 초가 집에 이엉을 엮는 모습을 통하여 고향 마을의 아늑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인공 ‘나’가 예전에 살던 고향 마을도 『그 여자네 집』의 공간적 배경이 된 행촌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아늑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주인공 ‘나’가 살던 집은 더욱 아늑한 한옥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둠원들은 주인공 ‘나’의 고향 상식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로 양척지붕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양척지붕의 집을 그림의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 ③ 학습 내용을 신문으로 만들기

<신문 만들기> 활동은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신문’이라는 매체의 언어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매체의 언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험은 ‘문학 작품의 능동적 수용과 창의적 재구성’이라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지도 시 유의 사항>

- 각 모둠의 구성원은 기사문쓰기·등장인물과 인터뷰하기·사설쓰기 등의 개인별 하위과제를 통하여 작품을 재구성하고, 내면화 할 수 있게 한다.
- 이 과제는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교사가 준비한 구체적 활동 내용이 담긴 <취재 수첩>을 보고 나누어 맡을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선택한 과제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

#### ◆ 신문 기사 쓰기

신문기사는 개인별 과제 활동 중 가장 자주 접하는 친숙한 매체이다. 그러므로 신문 기사문의 형식에 대한 배경지식이 학습자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학습자에게 표제와 부제를 정하게 하고, 신문기사의 형식에 맞추어 사건을 기사문으로 작성하도록 하면 된다. 이는 10학년에서 배운 신문 매체를 읽기를 응용하는 심화 학습이 될 수 있고, 「일락서산」을 능동적으로 재창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인터뷰내용 쓰기

이 방법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흔히 쓰인다. 이 활동은 등장인물과의 가상 인터뷰 내용을 상상하여 쓰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인물의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물과의 인터뷰는 학습자의 창의적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적극적인 읽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재창조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미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나 유명인물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인터뷰 형식에 대한 배경지식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배경지식은 문학 작품과 연결되어 인물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인터뷰 문항은 학습자가 소집단별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대상도 소집단이 선택한 소주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사설 쓰기

사설은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심사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해서 학습자가 그 사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타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작중화자의 입장을 대변해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 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독자투고 쓰기

일반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독자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항의 등을 써 보내는 일이다. 독자투고는 직접 겪은 일을 토대로 “신문고” 형태

의 글을 적어도 좋고, 신문에 실린 남의 글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써도 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쓰되,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 광고 만들기

신문광고는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회사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작품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광고를 홍보하는 활동도 작품을 내면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각 소집단별로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들어간 신문을 제작해 봄으로써 학급구성원은 소설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지식을 다른 매체로 재구성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학습활동지 8 : 취재 수첩 만들기 예시>

<p>◆ 「일락서산」 모둠 활동 8 :</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취 재 수 첩 만 들 기 &gt;</b></p>	
· 모둠 이름 : 관촌사랑	· 모둠 구성원 이름 : A,B,C,D,E
· 신문 이름 : 관촌일보	· 발행인 : 관촌사랑 · 발행일 : 2005년 11월
기 사 분 담	취 재 메 모
<p>◎ 기사문 쓰기</p> <p>(담당자 : A )</p>	<p>○ 「일락서산」에 나타난 주제를 기사문으로 작성해 보자.</p> <p>- 고향의 개뿔로 인하여, 고향을 상실한 사람이 늘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쓸 예정임.</p>
<p>◎ 인터뷰 기사 쓰기</p> <p>(담당자 : B )</p>	<p>○ 토속어를 사용하는 등장인물의 인터뷰를 통하여, 등장인물을 이해해 보자.</p> <p>- 『관촌수첩』에서 인정의 하신인 봉전이를 인터뷰하여 기사를 쓸 예정임.</p>
<p>◎ 사설 쓰기</p> <p>(담당자 : C )</p>	<p>○ 「일락서산」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보자.</p> <p>-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신문사 편집장의 입장에서 사설로 쓸 예정임.</p>
<p>◎ 독자 투고 쓰기</p> <p>(담당자 : D )</p>	<p>○ 「일락서산」의 주제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투고 형식의 글을 써보자.</p> <p>- 댐 건설로 인하여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입장에서 망향대 건립을 바라는 독자 투고를 쓸 예정임.</p>
<p>◎ 공익광고 만들기</p> <p>(담당자 : E )</p>	<p>○ 「일락서산」의 주제와 관련된 공익광고를 만들어 보자.</p> <p>- 고향의 소중한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공익광고를 만들 예정이며, 모델은 『대장균』의 남자주인공인 지진희를 섭외할 예정임.</p>

관촌일보	발행인 : 관촌사랑 발행일 : 2005. 11.
------	-------------------------------

**고향의 변한 모습은 제 2의 실향민 만들어  
소설가 L씨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땀이 알을 품고/ 뼈꼭이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मे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1936년에 씌어진 정지용의 시 “고향”의 일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고향상실의 아픔을 표현한 이 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다. 소설가 L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월 소설가 L씨는 13년 만에 조부의 성묘를 위하여 고향에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13년 만에 찾아간 고향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유는 고향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예전의 자취를 살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L씨는 성묘를 마치고, 고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으나 고향에는 아는 사람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았으며, 도시의 문물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고향의 발전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제 그 발전 속으로 묻혔다고 생각하니, 이제 실향민이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L씨 뿐만이 아니다.

<관촌일보>에서는 지난 달 농촌에 고향을 둔 50대 이상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귀향 할 의사가 있는가?’하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있다’가 45%, ‘없다’가 55%로 나타났으며, 고향에 귀향 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고향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다.’가 45%, ‘고향이 개발되어서 지금 사는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가 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정감 어린 고향의 모습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비애를 엿 볼 수 있었다.

○○○○○○@gwanchonilbo.com

<b>관촌일보</b>	발행인 : 관촌사랑 발행일 : 2005. 11.
<b>고향의 따뜻한 사람 응점씨와의 인터뷰</b> <b>- 응점씨, 남몰래 불우이웃을 돕다 -</b>	
<p>이번 주 문화면에서는 『관촌수필』의 주인공들과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작가의 누이와도 같았던 따뜻한 심정의 소유자 응점씨다. 시골 농가에서 만난 응점씨는 반 백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해 칠순의 노파가 되어있었으나, 기자는 그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이유는 까랑까랑한 그녀의 노랫가락이 아직도 변함없었던 까닭이리라.</p> <p>『관촌수필』의 응점이를 그리워하며, 그녀와 나누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p>	
<p>○ 기 자 : 『관촌수필』을 통해서 작가 이문구 선생님은 응점씨의 따뜻한 마음을 무척 그리워하셨습니다. 응점씨의 어떤 면을 좋아하신 걸까요?</p>	
<p>● 응점이 : 글썄유, 민구헌티 별루 혀준것두 읊는디 민구가 날 이날 이때 꺼적 생각혀 주구 참 고맙내유.</p>	
<p>○ 기 자 : 그러시군요. 그럼 이문구 선생님이 응점씨를 주인공으로 「행운유수」이라는 소설을 쓰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p>	
<p>● 응점이 : 아이쿠, 그렇대유?</p>	
<p>○ 기 자 : 이 소설에서 이문구 선생님은 어린 시절 응점씨와의 추억을 아주 인상 깊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응점이 : 아마두 민구가 자라면서 정이 그리워서, 더 나를 그리워했을 지두 모르것내유. 내가 동네 배렁뱅이며, 동냥중, 문둥이헌테까지 밥을 주구 그랬으니까유. 아마두 커가르서 그런 정 찾기가 힘드렸는가 부네유. 민구가 내 이야기를 소설로 썼으른 아마 그랬을 거유.</p>	
<p>○ 기 자 : 응점씨는 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도와주신건가요?</p>	
<p>● 응점이 : 제가 동네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모른척 허구 살수 없었던 것은, 사람 사는 최소한의 도리가 그게 아니지 싶어서 그랬슈. 제가 녀에 집에서 부엌데기를 혀두, 집에서 나오는 누룽게는 카이꺼 내 심으로 어린 사람 줄 수 있었응게 그렇게 했쥬.</p>	

넘 심 들여가며 하는 것두 아니구, 내 심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했슈.

○ 기 자 : 이문구선생님도 아마 웅점씨의 이런 너그럽고 따스한 인정을 근래에는 보기 어려워서, 작품에 많은 면을 할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설가가 웅점씨의 이야기를 다시 소설로 쓴다면 허락 하시겠습니까?

● 웅점이 : 넘 부끄럽게 워떻게 또 내 얘기가 소설루 쓰게헌네유? 그냥 민구는 나를 그리워하는 맘이 깊어서 썼다구 혀두, 낭증이 사람들이 웅점은 참 착헌 사람 그렇키 알텐디, 넘부끄러워 살겼어유? 시방두 내가 현일들이 착허다 착허다 허니까 얼굴을 못 들것구만.

○ 기 자 : 허락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웅점이 : 그렇쥬. 담이라두 그런거는 물어보지 마슈.



웅점씨의 선행을 기자가 자꾸 부각하자, 웅점씨는 인터뷰를 짧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소설에 나오는 수다쟁이 웅점씨와는 다르게 실제 웅점씨는 과거 자신의 선행이 소설에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자신의 능력껏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인데, 주변에서 보기 힘든 인간성의 소유자라는 극찬이 그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웅점씨의 '남 부끄럽다.'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 웅점씨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조차 현대인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에, 웅점씨는 우리에게 각별한 사람이다.

○○○○○○@gwanchonilbo.com

<b>관촌일보</b>	발행인 : 관촌사랑 발행일 : 2005. 11.
<b>WTO와 슬픈 고향</b>	
<p>세칭 “촌놈”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p> <p>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고. 촌놈들에게 고향은 항상 든든한 뺨이다. 점점 목을 쪼여 들어가는 서울 생활에 지칠 때, 연어의 회귀 때처럼 꾸역꾸역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아직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고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고향은 점차 죽어가고 있다. ‘농촌이 죽어간다.’는 말은 벌써부터 들던 소리다. 어쩌면 산업화 시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면서 이미 농촌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동안 ‘진정 아니기를, 내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버텨주기를’ 기대하며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외면 속에서 고향은 수십 년간 앓아온 자신의 병든 몸동아리를 마침내 드러내고 만 것은 아닐까? ‘사람이 희망’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있음으로 그 울타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일게다.</p> <p>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8군데에 이르고 10명 이하인 곳은 290곳, 100명 미만인 곳은 2,056곳에 이른다고 한다. 아이의 울음소리, 사람의 발자국이 끊어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통계가 주는 섬뜩한 경고를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다시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누가 만든,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세계화’에 밝히고 치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등지고 세계의 유민(流民)으로 전락하는 마당에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농촌에 눈 돌릴 여유가 있겠는가?</p> <p>그럼에도 진정 그럼에도 다시 농촌이 희망이요, 사람이 희망이라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농촌이 베푼 젖으로 자라난 오늘의 한국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오늘. 그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농촌에 농업에 있음을, 사람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상사의 법칙이 아닐까?</p> <p style="text-align: right;">○○○○○○@gwanchonilbo.com</p>	

### 수몰민들을 위한 망향대 건립을 바라며

우리 가족은 내가 8세가 되던 10년 전, 고향을 잃었다.

우리가 살던 마을이 댐 건설 지구로 선정되어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우리 가족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는 보상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은 예전에 살았던 집과 이웃들을 잊지 못하며,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10년 전 수몰되어 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죽은 아들이 세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행동일지도 모르나,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을 지도로 가볼 수 없는 심정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이를 빼고는 알지 못하리라.

우리 가족은 지금도 댐이 되어 버린, 그래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고향을 찾아 가곤 한다.

이제는 자취도 없이 물속에 잠겨 버린, 그래서 공허할 뿐인 고향에서 불러보는 망향가는 비록 메아리가 되곤 하지만 우리가 그 곳 찾는 이유는 우리의 추억과 사랑이 그 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찌 그 곳을 꿈엔들 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은 우리와 같은 수몰민들 모두가 마찬가지다. 휴일에 댐을 찾아가면 많은 수몰민들이 댐을 둘러보면서 고향의 흔적을 찾는다.

댐 관계자는 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람선을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람선의 개통보다는 수몰민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망향대의 건립이 우선이 아닐까?

○○○○○○@gwanchonilbo.com

<학습 활동지 8-5 : 광고 만들기 예시>

<b>관촌일보</b>	발행인 : 관촌사랑 발행일 : 2005. 11.
<p>당신의 상상X125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혼жат말이 많아졌다.</li><li>- 걸음이 빨라졌다.</li><li>- 그래도 당신에게는 故鄉이 있다.</li></ul>	
<p><b>광고 해설</b></p> <p>125라는 숫자는 도시인에게 고향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가치가 도시인이 평상시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 125배나 많았다는 연구수치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p>	

#### 4)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일락서산」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전체 구성원이 각 소집단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교사도 학습자의 활동을 평가한다.

##### (1) 동료평가

###### ① 모둠 내 상대 평가

가. 평가기준

- 정해진 시간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가?
-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 하였는가?
- 협동에 도움이 되었는가?
- 신문이 완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가?

나. 평가 내용

<학습활동지 9 : 예시>

◆ 「일락서산」 모둠 활동 9 : 모둠 내 평가하기				
모둠 이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학 생 평 가		교 사 평 가
이 름	평가 내용	점 수	의 견	점 수
A	조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음. 신문이 완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	5	조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돋보임.	5
B	신문에 들어 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함.	5	<취재 수첩>을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모둠원들을 이끌어 나갔음.	5
C	자료제공과 함께 분위기 메이커였음.	5	<신문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음.	5
D	정보 활용에 탁월한 능력이 있음.	5	창의적임	5
E	그림과 광고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음	5	성실함 창의적임	5

②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가. 평가기준

- 기사의 내용이 풍부한가?

○ 신문사의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나. 평가 내용

<학습활동지 10 : 예시>

◆ 「일락서산」 모둠 활동 10 : 다른 모둠 평가하기						
모둠 이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모 듬 이 름	평가 내용	학 생 평 가			교 사 평 가	
		점 수 내용 (5점)	창의성 (5점)	등수	의 견	점 수
관촌사랑	당신의 상상 125배라는 커피가 인상적이었음.	5	5	1	성실하고, 창 의적임.	5
일락서산	독자투고란의 창의성이 돋보임.	3	2	3	성실함.	3
용점사랑	독자인터뷰가 재미있었 음.	2	2	4	창의적임.	4
조부사랑	다른 조의 것들을 많이 모방했음.	1	2	5	성실하지 못 함.	2
고향사랑	기사문과 인터뷰가 창 의적이거나 광고를 완성 하지 못했음.	4	4	2	성실하고 창의 적인 편임.	4
농촌사랑	신문이 제대로 완성되 지 못하였음.	1	1	6	팀원간의 조화 가 없었음.	1

## IV. 결 론

본 연구는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내포하고 있는 현대적 의의를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관촌수필』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교수-학습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신문을 활용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관촌수필』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학습자의 개성을 강조하고, 소설 작품에 대해 비판적·창의적인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매체가 신문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가 활용한 신문매체는 소설 『관촌수필』을 교육하는데 있어, 다음과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소설 작품 수용과 창작 능력,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넷째, 협동학습과 취재과정 등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탐구 능력의 향상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의 정보 마인드 함양과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다.

여섯째, 모듈별 토의 학습을 통하여 협동심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전제로 하여, 『관촌수필』의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신문을 활용한 「일락서산」의 수업은 총 4차시로 계획하였으며, 교실 분위기는 논쟁 지향적이며, 탐구·토의학습에 적절한 모둠을 편성하여 학습자 중심의 과제 지향적으로 열려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일락서산」의 작품 안에 담긴 여러 구성요소들을 학습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작가와 관련 된 신문 기사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소설과 신문의 공통점인 서사성에 기초한 것이다. 신문은 비문학적인 글이지만,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학작품을 학습하는데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학습자들 스스로 알게 하여 학습의 흥미를 이끌었다. 또한 이렇게 학습한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습자의 자기 체험으로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신문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신문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모둠활동을 통해 모둠원들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하였다. 활동의 결과물인 신문을 모둠별로 평가하고 협의된 평가서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계획단계→진단단계→지도단계→평가단계”의 4단계로 「일락서산」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관촌수필』을 읽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신문의 형식을 활용하였다. 학습자에게 신문의 활용 교육은, 작품에 대한 “비평적 이해”나 “해석적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자가 장르를 바꾸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좀 더 정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학습자는 이러한 표현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게 된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 문학교육 영역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문학 작품 수용과 창작능력’,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서

이문구, 이문구 전집 8『관촌수필』, 랜덤하우스 중앙, 2004.

\_\_\_\_\_, 「일락서산」, 『현대문학』, 1972년 5월.

\_\_\_\_\_, 「화무십일」, 『신동아』, 1972년 10월.

\_\_\_\_\_, 「행운유수」, 『월간중앙』, 1973년 3월.

\_\_\_\_\_, 「녹수청산」, 『창작과 비평』, 1973년 가을호.

\_\_\_\_\_, 「공산토월」, 『문학과 지성』, 1973년 겨울호.

\_\_\_\_\_, 「관산추정」, 『창작과 비평』, 1976년 겨울호.

\_\_\_\_\_, 「여요주서」, 『세계의 문학』, 1976년 겨울호.

\_\_\_\_\_, 「월곡후야」, 『월간 중앙』, 1976년 겨울호.

교육인적자원부,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대한교과  
서, 1997.

신헌재·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 교육』, 박이정, 1999.

구인환·우한용·박인기·최병우,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 2. 단행본

피어시 라보크, 『소설기술론』, 일조각, 1995.

서영채,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권성우, 「1991년에 읽은 『관촌수필』」, 『관촌수필』, 문학과 지성사,

1997.

권영민, 「연작과 연작소설의 장르적 가능성」,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김치수, 「농촌소설의 의미와 확대」, 『우리시대 우리작가 6 - 이문구』, 동아출판사, 1987.

염무웅, 「도시-산업화시대의 문학」,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9.

유종호, 「농촌 최후의 시인-그 언어와 문체」, 『다갈라 불망비』, 솔출판사, 1996.

김윤식, 「문체의 힘」, 『한국현대소설사』, 일지사, 1976.

황현산, 「소설 수필 시」, 『관촌수필』, 솔출판사, 1997.

진영복, 「인정(人情)의 세계에서 인정(認定)을 세계로」, 『현역중진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7.

한승원, 「순수한 참여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운 이문구』, 중앙M&B, 2004.

김만수, 「땅의 근본과 사람의 도리에 대한 성찰」, 『한국 소설문학 대계』, 동아출판사, 1995.

강금순, 「NIE를 통한 프로그램 구안 적용이 언어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현장교육연구 논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나남출판, 1995.

허병두,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NIE의 이해와 실제』, 중앙M&B, 1997.

김훈순,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청소년과 인쇄매체』, 1994.

오주석·최상희, 『NIE 지도 전략』, 도서출판 대일, 1999.

일본신문협회, 연구보고서 「신문과 교육」, 한국신문협회, 1995.

### 3. 잡지 및 학회지

김만수, 「전래적 농촌에 대한 회고적 시각」, 『작가세계』 1992년 겨울호.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사』, 1979년 봄호.

김우창, 「근대화 속의 농촌」, 『세계의 문학』, 1981년 가을호.

김태현, 「문체의 윤행과 농촌의 변모」, 『현대소설』, 1990년 가을.

유제덕, 「문학교육에 있어서 제재 선정 및 지도 방법」,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 60집, 1997.

### 4. 학위논문

이대성, 「이문구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전은옥, 「이문구 소설 문체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조용미, 「이문구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 청, 「이문구 소설의 골격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이라운안,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유복순,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주희, 「한국 현대 연작 소설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이계영, 「신문매체를 활용한 독서 수업이 비판적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윤종원, 「신문을 활용한 독해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4. 강연 및 학술 세미나

이문구, 「『관촌수필』과 나의 문학여정」 동영상 녹취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0.

「미디어 교육의 이해」, 제 41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1997.

#### 5. 방송 및 신문 매체

한국방송공사, 「소설가 이문구의 문학과 생애」, 『TV 책을 말하다』, 2003년 3월 6일 방영분.

한국방송공사,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이문구편」, 『인물현대사』, 2005년 1월 28일 방영분

이은파, 「충남 보령시 숨어있는 관광자원 개발 열기」, <연합뉴스>, 2005년 05월 15일.

한승주, 「『이문구 소설어 사전』 6000여 어휘 정리」, <국민일보>, 2001

년 1월 16일.

이문구, 「『관촌수필』의 응접이에게」, <동아일보>, 1997년 10월 25일.

# ABSTRACT

Study on teach-study 『Gwan Chon Essay』 of Moon Gu Lee  
- Focusing on applied the medium of newspaper and study on cooperation -

Kim, Yun O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it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Gwan Chon Essay』 of Moon Gu Lee is a fiction produced in collaboration, written between 1972 to 1977.

It is a work that draws the picture of hometown destructed due to 6.25 war and industrialization from affectionate eyes of the writer and with excellent vocabulary.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Gwan Chon Essay』 of Moon Gu Lee is considered the outstanding work that represent the fictions of the 1970s, and holds many significance from modern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designing a guidance model that will effectively teach-study the modern significance implied in 『Gwan Chon Essay』 in schools.

As a more concrete guidance model, this researcher has applied the medium of newspaper to expand the individuality of the learner, and to allow the learner to creatively accept the text.

Therefore, in chapter II, where full-scale discussion is led, the basic characteristic of the newspap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n educational application was examined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n chapter III, prior to presenting the teaching-studying plan that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newspaper in chapter II, points of discussion of 『Gwan Chon Essay』 that can be adopted as assignments for Study on Inquiry or Study on Cooperation were presented in chapter III-1 and were accepted as the assumption for teaching-studying model.

In chapter III-2, with basis on the teaching-studying model that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in chapter II and the internal problems of text as discussed in chapter III-1, teaching-studying model of 「Ilack Seosan」 was presented.

The teaching-studying model of 「Ilack Seosan」 was largely designed as “planning stage → diagnosis stage → guidance stage → evaluation stage”, and based its design on the Study on Cooperation, the learner-oriented lessons.

The guidance stage following the diagnosis stage was divided into “general approach → analytic approach → comprehensive approach.”

Moreover, in each of the approach stage of the text,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work and writer were used to evoke interest of the learners an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lessons.

The evaluation stage was designed to reproduce and accommodate the contents studied in the guidance stage through “create newspaper”

activity.

Then, by evaluating the <create newspaper> activity by each module and making presentation on the mutually agreed evaluation report, learners may perform overall language activity.

This kind of teaching-studying process will aid learners to accept 『Gwan Chon Essay』 of Moon Gu Lee, and will be an effective guidance model in internalization.

# 부 록

<학습활동지 1>

◆ 「일락서산」 모둠 활동 1 :

## 줄거리와 구성 파악하기

모둠 이 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보자.

- 소설의 구성단계를 파악해 보자.

발 단	전 개	위 기	절 정	결 말

<학습활동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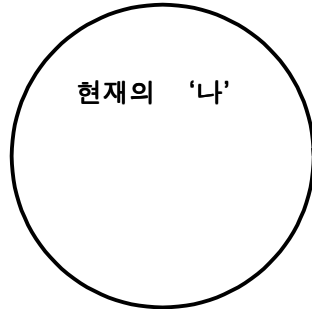
◆ 「일락서산」 모듬 활동 2 :

소설의 인물망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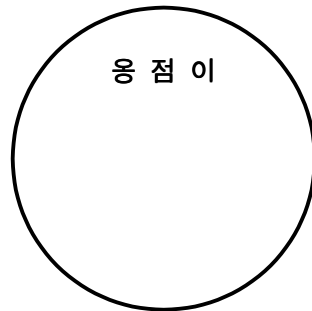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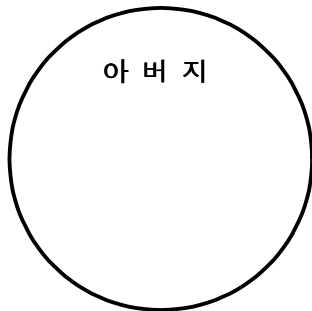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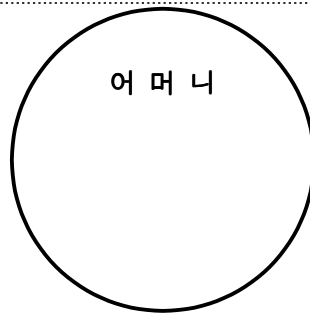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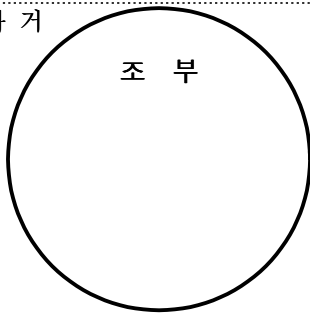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



과거



<학습활동지 3>

◆ 「일락서산」 모듬 활동 3 :

소설의 배경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

모듬의 의견

<학습 활동지 4>

◆ 「일락서산」 모듬 활동 4 :

작가의 창작 의도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문학관의 건립도 작가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고향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닐까?

문학관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	문학관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

<학습활동지 5>

◆ 「일락서산」 모듬 활동 5 :  
소설의 문체 파악하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관촌수필」에서 작가 사용한 문체를 토론해 보자.

토 의 내 용

<학습활동지 6>

◆ 「일락서산」 모둠 활동 6 :

화자의 심정 이해하기

모둠 이 름		기록자	
모둠 구성원		날 짜	

- 작중 화자에게 편지를 써 보자.

<학습활동지 7>

◆ 「일락서산」 모듬 활동 7 :

고향을 그림으로 그리기

모듬 이름		기록자	
모듬 구성원		날 짜	

- 주인공 '나'가 고향을 방문하여 느낀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그림 설명

<학습활동지 8>

◆ 「일락서산」 모둠 활동 8 :

<취재수첩만들기>

· 모둠 이름 :	· 모둠 구성원 이름 :
· 신문 이름 :	· 발행인 :
	· 발행일 :
기사분담	취재메모
◎ 기사문 쓰기  (담당자 : )	○ 「일락서산」에 나타난 주제를 기사문으로 작성해 보자. -
◎ 인터뷰 기사 쓰기  (담당자 : )	○ 토속어를 사용하는 등장인물의 인터뷰를 통하여, 등장인물을 이해해 보자. -
◎ 사설 쓰기  (담당자 : )	○ 「일락서산」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보자. -
◎ 독자 투고 쓰기  (담당자 : )	○ 「일락서산」의 주제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투고 형식의 글을 써보자. -
◎ 공익광고 만들기  (담당자 : )	○ 「일락서산」의 주제와 관련된 공익광고를 만들어 보자. -

<학습 활동지 8-1,2,3,4,5>

(신문사 이름 적기)	발행인 : 발행일 :

